

2020 제12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코로나 위기

# 사회적경제의 접근법과 역할

일시 2020년 5월 14일 (목) 14:00~16:00 장소 온라인 중계

공동주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KN-E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후원 행복나래



## 2020 제12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진/행/순/서/

시간	구성	내용
14:00~15:00 (60분)	발제	<b>발제1</b> 사회적경제가 처한 위기와 대응현황 ..... p.05 주태규 (통합지원기관전국협의회 공동대표·사회적경제 코로나 대응본부 조사통계반장)
		<b>발제2</b> ‘코로나 위기’ 속 해외 사회적경제 분야의 활동점검 ..... p.15 신재민 (해외정보분석연구협동조합 이사장)
		<b>발제3</b> 사회적 금융의 대응현황과 쟁점 ..... p.25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실장)
15:00~16:00 (60분)	토론	<b>좌장 겸 토론</b> 정태인 (전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장) ..... p.49  토론①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 p.61 토론② 라정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재난안전연구소 부소장) ..... p.65 토론③ 강현구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 준비위원장) ..... p.75  * 전체토론 : 발제자 + 토론자 전원

※ 2020년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은 코로나 특집 시리즈로 진행 예정

첫 번째 포럼은 사회적경제 분야의 위기극복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 이후엔 우리 삶의 기본을 바꾸는 담론과 쟁점, 부문별 역할 등을 논의하는 포럼으로 시리즈 기획할 예정입니다.



발제(1)

# 사회적경제가 처한 위기와 대응현황

주태규

(통합지원기관전국협의회 공동대표·사회적경제 코로나 대응본부 조사통계반장)



# 코로나 위기, 사회적경제의 비상 접근법과 진로 찾기

- 사회적경제가 처한 위기와 대응현황 -

2019.05.14

Copyright©2020 By PNS. All rights reserved.  
©2020 PNS.SE\_COOP. All rights reserved.

통합지원기관 전국협의회 상임대표. 사회적경제 코로나 대응본부 조사통계반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이사장 주태규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비상상황 도래

\* 출처 : 기획재정부 웹페이지

## '굶어죽느니, 코로나로 죽겠다' 전세계 저소득층 '생활고 시위'

\* 출처 : 한겨레 정의길 선임기자 기사 캡처

## 사회적경제 민간부문의 대응활동

**사회적경제 주체의 기여와 연대 활동 소식**

제목	작성일	사회적경제 코로나19 대응본부 활동	작성일
[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COVID-19)대응 종합보고서	2020.04.20	코로나대응본부 4월 1-2주 '반별 회의록	2020.04.09
공익기자재 코로나-관련 사회적경제기업 대책/지원정책 (기사요율) ...	2020.04.01	4월 6일 주간공지	2020.04.08
대구에서 온 분지 - 공감시스 의명첩	2020.03.30	4월 1일 공지	2020.04.08
코로나바이러스-19 관련 노동자/사업주 지원 안내	2020.03.24	기업 기부금 및 모금활동에 대한 안내	2020.04.06
아이클생협, 전국 69개 회원조합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례	2020.03.24	코로나대응본부 참여제안서 및 참여신청서	2020.04.02

\* 출처 : 사회적경제 코로나19 대응본부 웹페이지

3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경제조직 피해 현황 조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경제조직 피해 조사

기업명	개업연월
소재지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사회적경제유형	① (예비)사회적기업 ② (사회)책임조직 ③ 마을기업 ④ 자활기업
업종	① 농·축산·어·양·광업 ② 제조업 ③ 도·소매·유통 ④ 요양업 ⑤ 문화·예술·관광 ⑥ 교육·보육 ⑦ 보건·복지·건강 ⑧ 청소·환경·재활업 ⑨ 기타 서비스
재무상태(2019)	총자산 매출액 부채 영업이익

- 전년 동기대비 1분기(또는 2-3월) 매출 감소 비율  
(1)감소를 20% 내외 (2)감소를 40% 내외 (3)감소를 60% 내외 (4)감소를 80% 내외 (5)기타
- 매출감소에 따른 가장 큰 애로사항은?(복수선택)  
(1)인건비, (2)임대료, (3)금융조달비용, (4)원재료비 (5)세금 등
- 매출감소로 인한 긴급 운전자금 필요 유무?  
(1)필요하다  
(2)필요하지 않다
- 긴급 운전자금 필요시 그 규모는?  
(1)3천만원 미만 (2)3천만원-5천만원 미만 (3)5천만원-1억원 미만 (4)1억원-2억원 미만 (5)2억원 이상
-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정책당국에서 시급하게 지원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우선순위 3개 중복선택)  
(1)공공부문 판로지원  
(2)사회적경제 상호거래 활성화  
(3)긴급자금 대출/지원  
(4)마스크/소독수 등의 방역서비스 제공  
(5)기타(자율기술 : )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위기로 고용조정을 고려하고 있나요?  
(1)있다 (2)없다
- 6-1. 고용조정을 고려하고 있다면 그 규모는 어느 수준인가요?(2019년 12월 근로자 기준)  
(1)10~30%감원 (2)30~50%감원 (3)50~70%감원 (4)70~90%감원 (5)100%감원
- 정부에서 발표된 코로나19 관련 대책중 현장에서 사회적경제조직에게 여전히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서술식)
- 현재 발표된 내용 외에 정부/지자체/지원기관에 요청할 사항은?(서술식)

### 피해조사 개요

#### 배경

\* 지역별/부문별로 진행하던 피해 조사에 대한  
일원화 필요성 제기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의 코로나19  
대응본부 구성(조사통계/모금/사회적소비)

\* 피해조사 이후 정기적 현장 상황 모니터링과  
더불어 지원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병행/정책제안

#### \* 설문조사 개요

- 기간 : 2020년 3월 10일 ~ 3월 27일  
- 표본 : 사회적경제조직 365개소  
- 항목 : 8개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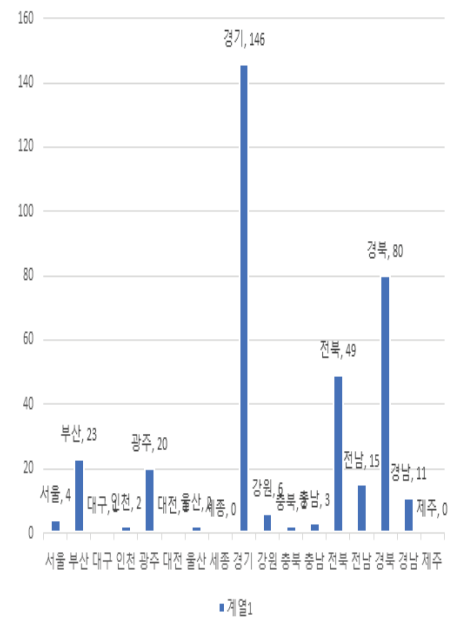
코로나19 사회적경제조직 피해조사 설문지

4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경제조직 피해 현황조사 결과\_지역현황

지역	개수	비율	지역	개수	비율
서울	4	1%	강원	6	2%
부산	23	6%	충북	2	1%
대구	1	0%	충남	3	1%
인천	2	1%	전북	49	13%
광주	20	5%	전남	15	4%
대전	1	0%	경북	80	22%
울산	2	1%	경남	11	3%
세종	0	0%	제주	0	0%
경기	146	40%	합계	36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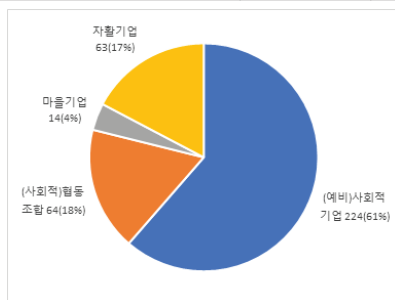


피해조사 응답\_지역별 현황, n = 365개소

5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경제조직 피해 현황조사 결과\_유형/업종 현황

구분	조직유형	개수	비율
1	(예비)사회적기업	224	61%
2	(사회적)협동조합	64	18%
3	마을기업	14	4%
4	자활기업	63	17%
합계		365	100%



피해조사 응답\_유형별 현황, n = 365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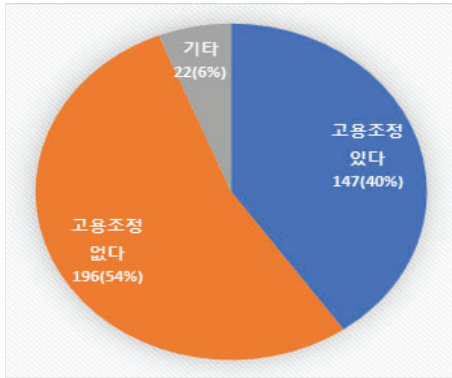
구분	업종현황	개수	비율
1	농·축산·어·임·광업	18	5%
2	제조업	81	22%
3	도·소매, 유통	35	10%
4	요식업	22	6%
5	문화·예술·관광	45	12%
6	교육·보육	52	14%
7	보건·복지·건강	21	6%
8	청소·환경·재활용	22	6%
9	기타 서비스	69	19%
합계		365	100%

피해조사 응답\_업종별 현황, n = 365개소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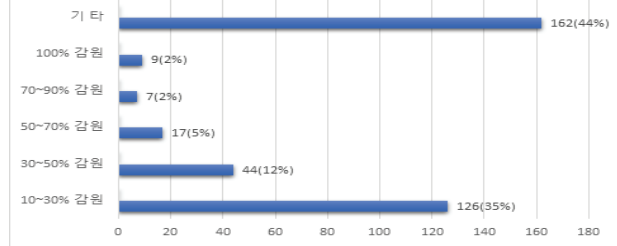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경제조직 피해 현황조사 결과\_고용조정여부/규모 현황

고용조정 여부	개수	비율
있다	147	40%
없다	196	54%
기타	22	6%
합계	365	100%



피해조사 응답\_고용조정여부, n = 365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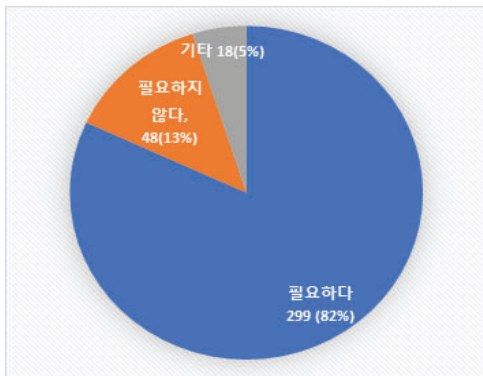
규모현황	개수	비율
10~30% 감원	126	35%
30~50% 감원	44	12%
50~70% 감원	17	5%
70~90% 감원	7	2%
100% 감원	9	2%
기 타	162	44%
합 계	365	1



피해조사 응답\_고용조정시 규모 여부, n = 365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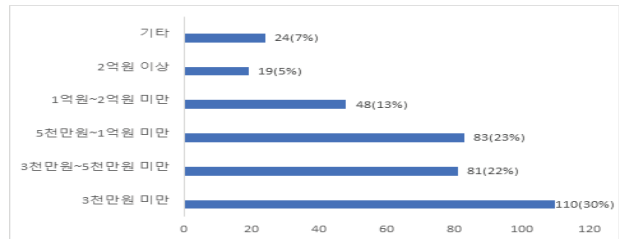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경제조직 피해 현황조사 결과\_긴급운전자금 필요여부/규모 현황

필요여부	개수	비율
필요하다	299	82%
필요하지 않다	48	13%
기타	18	5%
합계	365	100%



피해조사 응답\_긴급운전자금 필요여부, n = 365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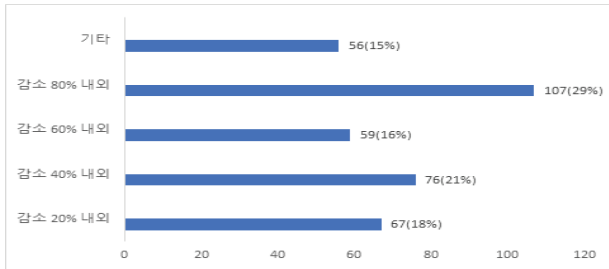
규모현황	개수	비율
3천만원 미만	110	30%
3천만원~5천만원 미만	81	22%
5천만원~1억원 미만	83	23%
1억원~2억원 미만	48	13%
2억원 이상	19	5%
기타	24	7%
합계	365	100%



피해조사 응답\_긴급운전자금규모, n = 365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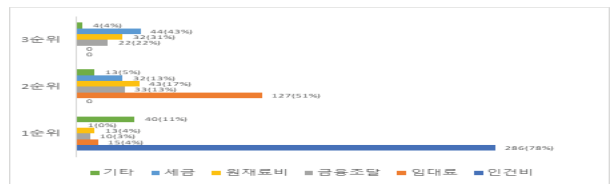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경제조직 피해 현황조사 결과\_매출감소/애로사항 현황

매출감소현황	개수	비율
감소 20% 내외	67	18%
감소 40% 내외	76	21%
감소 60% 내외	59	16%
감소 80% 내외	107	29%
기타	56	15%
합계	365	100%



피해조사 응답\_매출감소현황, n = 365개소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인건비	286	78%	0	0%	0	0%
임대료	15	4%	127	51%	0	0%
금융조달	10	3%	33	13%	22	22%
원재료비	13	4%	43	17%	32	31%
세금	1	0%	32	13%	44	43%
기타	40	11%	13	5%	4	4%
합계	365	100%	248	100%	102	100%



피해조사 응답\_매출감소 애로사항, n = 365개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경제조직 피해 현황조사 결과\_정책당국 요청 현황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공공부문판로지원	124	34%	31	12%	0	0%
사회적경제상호거래활성화	28	8%	56	21%	0	0%
긴급전자자금대출	114	31%	87	33%	8	5%
긴급소액자금지원	41	11%	29	11%	22	13%
방역서비스제공	13	4%	58	22%	12	7%
인건비지원	39	11%	0	0%	127	75%
기타	6	2%	0	0%	0	0%
합계	365	100%	261	100%	169	100%

피해조사 응답\_정책당국 요청사항, n = 365개소

# 사회적경제조직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현황

코로나19,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대책 한눈에 보기 [20.4.21 업데이트]

\* 원장 배로-건 의사상 제안: 조사표(한글바탕) 작성 후 [policy@kosesa.or.kr](mailto:policy@kosesa.or.kr)로 송부 <조사표 다운로드> / 1566-5365

분야	구분	내용	대상	더 알아보기
	사회적기업 지원 (고용노동부)	①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사업 및 지원금 선지급 허용 ②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고용유지조치(휴업,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등), 일시적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면제 ③ 지역 차용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통해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추가지원 ④ 코로나19로 휴업할 경우 지원금 지원 가능 <b>휴업 지원금 기온 안내</b> ※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③, ④번 지원금 신청은 3.13(금)부터 가능합니다.	사회적기업	<a href="#">자세히 보기</a> ※ 문의사항은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담당과, <b>광역별 통합지원기관</b> 으로 연락 바랍니다. <a href="#">자주 묻는 질문 FAQ</a>
	사업주 지원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 관광공인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 3.19~9.15 기업규모 무관 지정, 지원금수준 상향(80%) 등 지원강화 ▲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단,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 ▲ 유연근무제 활용기업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코로나19 영세사업장 인건비 지원) * 영세사업장 추가 지원(->늘) ▲ 코로나19 피해 유급휴가비용 지원 ▲ 코로나19 피해 경영회복, 사업정리, 재기지원 - (경영회복) 장포재계장 비용 지원(최대 3백만원) - (폐업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및 정보활용기 지원(최대 2백만원) ▲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배포 ▲ 공연예술 분야 코로나19 상담장구 운영 * 법률, 노무, 경영 등 고충상담 및 피해사례 수집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 종사자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를 실시한 사업주 유연근무제 활용 제도 마련 및 중퇴근 관리한 기업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중인 사업주 코로나19로 휴업 또는 격리된 자에게 연차유급휴가와 분개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a href="#">자세히 보기</a> 신청: <a href="#">고용보험포괄페이지</a>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문의: 1350 신청: <a href="#">고용보험포괄페이지</a> →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문의: 1350 신청: <a href="#">중단연급금지정보연급</a> 및 고용센터 방문 또는 <a href="#">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a> 신청: <a href="#">국민연금공단</a> 지사로 퍼스 우편방문신청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경영 및 고용 지원  <a href="#">관련법 Q&amp;A</a>		▲ "휴업, 휴직, 휴가" 익명신고센터 운영(4.6~6.30) - 코로나19에 따른 휴업, 휴직, 휴가 및 가족돌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다름에 대해 근로자가 피해사실 신고 및 관리구제 ▲ 무급휴직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대상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4월~) ▲ 코로나19로 인한 해고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	재택근무 실시 기업 공연예술분야 기업 휴업, 휴직, 휴가 및 모성보호 관련 피해를 입은 근로자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코로나19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	신청: <a href="#">국민연금공단</a> 지사로 퍼스 우편방문신청 문의: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경영회복) 문의: 각 지자체 (매일지원) 문의: 1357 <a href="#">자세히 보기</a> <a href="#">가이드라인 자세히 보기</a> 예술경영지원센터 02-708-2261 신청: <a href="#">고용노동부 홈페이지</a> (생계비지원) 문의: 각 지자체 (긴급복지지원) 문의: 129 <a href="#">자세히 보기</a> 문의: 1350

출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코로나19,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대책! 페이지 캡처

# 사회적경제조직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현황의 진입장벽

## □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조직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항

- 지역신용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신협 등 **여신한도제한으로 운영자금 마련이 어려움**
- **접수와 심사기간이 길고** 부채비율로만으로는 대출의 유/무를 판단하는것에 대한 아쉬움
-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인식 부족과 판로개척의 어려움**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심사 및 집행의 소요기간의 비탄력성
- 사회적기업이기에 지켜야할 각종 의무와 책임이행이 많고 부담스러움

##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지자체·지원기관에 요청할 사항

- 공공구매 판로지원, 공공구매예산 사전집행 등
- **공공기관 입주업체 임대료 감면**
- **긴급운전자금 대출**
- 마스크 손소독제등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

## □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등 사회적경제 분야의 연대를 기반으로 한 상호지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요청할 사항이나 하고 말은

- **긴급자금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구매촉진**
- **사회적기업 등 지역 소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대표들 간의 대책정책회의 참여 등)**
- 신규 사업자에게 생소한 사항들이 많으니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역량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 홍보 마케팅 참여 및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되는 활동과 노력

#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의 활동

## 코로나19 대응 사회적경제 사례발굴(3.19.(목))

### 1 기존사례(언론보도) 정리

- (대상) 사회적경제기업이 주체가 되어 코로나19 현장지원을 위해 대응·협력한 사례
- (구분) 연대/전문기부/일반기부/사회공헌기부/캠페인
  - (연대) 사회적경제기업 단독이 아닌 2개소 이상 협력하여 진행한 건
  - (전문기부) 사업과 관련되어 있고 전문성을 살린 기부
  - (일반기부) 전문기부 이외에 사업과 무관한 기부
  - (사회공헌기부) 사회공헌 차원에서 사회적경제기업과 협력하여 수행한 기부

구분	순번	주요내용	비고	출처
연대 전문기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제) 협동조합가치공유연구소(에비사회적기업), 서초구 지역 청년예술가</li> <li>·(대상) 서초구 5개 지역의 동네가게 50곳</li> <li>·(내용)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라이 사업'을 통해 점포 인테리어 개선, 추후 마케팅 프로모션 진행 예정</li> </ul>		연호뉴스 (3.19)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제) 강원민천협동조합과 삼척대소미자생협동조합, 원주푸드협동조합,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원주푸드협동조합, 원주푸드신활력플러스 추진단 사무국, 삼척대산학협력단, 원주식생활학교육네트워킹, 원주시간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후를 나눔 봉사단</li> <li>·(대상) 대구지역 주민</li> <li>·(내용) 도시락 150개 전달</li> </ul>		이투데이 (3.19)

총 212건의 연대와 기부, 캠페인의 사례 확인  
출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코로나19, 사회적경제 사례발굴 캡처

### 나누고 채우고...사회적경제의 '위기 극복 클라스'

"일 잘하는 손쉬운 길 대신  
거버넌스 체계로 문제 해결"  
"고용조정 제도 선인 것보다  
실시간 개인별대응과  
이러한 기업에 긴급자금 지원도"



총력 정부의 사회적기업 공공기관이 맡은 일을 초·코로너로 이해함에 따라라도 고용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같은 것을 전사하고 속세 등을 지켜보는 사업을 해온 데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피하기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의 특성은 손쉬운 길을 택하는 대신 사회적경제 기업은 반드시 위기 극복을 위한 길을 찾아야 한다. 실제 한국사회적기업은 고용조정 제도에 선인 것보다, 실시간 개인별대응과 이러한 기업에 긴급자금 지원도

진행 중이다. 10월 현재 500여명이 있다. 코로나19 대응본부에 민간 단체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후원한 지역지원단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조정 제도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도 고용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는데, 이번 사태는 앞장 서서서도 부족한 일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이번 정부 지원금과 긴급자금 지원도

출처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이종규 연구위원 기사 캡처

#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의 활동에 정부가 화답할 때!!



대한민국 청와대일이 새로운 사진 7장을 추가했습니다. 1분 00초

**[제5차 비상경제회의]**  
**"일자리 지키는 것은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  
 -"고용 기업 지원·고용 사각지대 축소·일자리 창출"  
 -"한국판 뉴딜" 추진할 기확단, 신속 준비"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 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대통령은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다"고 발언을 열어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민 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쯤은 위기의 시작 단계"라고 진단하며 정부가 더욱 강력하게,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40조 원 규모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며 이를 통해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국민의 체면을 투입하는 대신에 지원 받는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며 고용 안정이 전제되어야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 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35조 원을 추가하여 135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조치도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하여 코로나19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청와대페이스북\_2020.04.22

감사합니다



발제(2)

# **‘코로나 위기’ 속 해외 사회적경제 분야의 활동점검**

**신재민**

(해외정보분석연구협동조합 이사장)





코로나 위기, 사회적경제의 접근법과 역할

## '코로나 위기' 속 해외 사회적경제 분야의 활동 점검

2020. 5. 14

신재민  
(해외정보분석연구협동조합)

### 코로나 19 위기, 불확실성의 시기

-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과 그로인한 경제 및 사회적 영향으로 인해 세계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의 시기에 직면

- 코로나 위기 속에 제기된 문제의식 및 대안 탐색

- ① 에볼라, 사스, 조류인플루엔자, 메르스... 사스-코로나바이러스-2(코로나 19) 등 인류를 위협하는 새로운 질병이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구조적 원인과 해결 방향
- ② 주요 선진국의 코로나 초기 대응 부실, 코로나 19 확산에 대한 통제력 상실 원인 및 대안
- ③ 코로나 위기 속에서 더욱 드러난 사회, 경제적 불평등 심화 문제에 대한 대안
- ④ 코로나 이후의 '그 전과 같은 일상으로의 복귀(Business as usual)' VS 근본적 사회, 경제적 변화를 위한 실천적 행동

➤ **코로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긴급 처방 +  
더 나아가 중장기 사회·경제모델 전환 전략 필요**

## 긴급 대응책

### □ 코로나 19에 대한 주요 국가의 정책적 대응 공통 기초

① **감염 확산 방지** : 우선 생존을 위한 방역 및 국민의 방역대책 협조 (비필수사업장의 폐쇄와 자가격리 등 물리적 거리두기), 진단 치료 제공(무상/유료, 의료보험 미가입자, 취약계층, 고령자, 외국인 등 포용 ?)

② **생계 보호** : 재난지원금 등 생계비 지원, 유급휴가 보장, 코로나 위기 기간동안 해고 금지, 고용보험 비가입자(프리랜서, 1인 기업, 플랫폼 노동자 등)의 실업급여 대상 확대 등

3

## 긴급 대응책

③ **경제적 충격 완화** : 재난 피해 기업 지원 대상 범위의 확대(규모, 업종 등), 지원 신청 기업의 피해 상황에 따른 지원, 절차의 간소화로 신속한 지원(세제, 금융 등)

\* 국가들마다 기본적인 공공의료(공중보건)시스템, 경제 수준 및 현황(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사회보장 시스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내놓은 세부적인 정책들이 차이가 나므로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기 어려움.

예) 공공의료체계 구축 수준(신종 전염병에 맞서 잘 조율된 전국적 대응을 신속하게 조직하는 역량, 지역사회 수준의 비상사태에 능히 대처할 인력과 자원-응급 병상 수, 치료장비, 의료인력 보호장비 등- 보유 등)과 인구 구성(환자의 연령대 등) 등 파악 필요

4

## 코로나 19 위기와 사회적경제

□ 국가 및 지역의 바이러스 확산 단계 및 사업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사회적 경제 기업도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음.

\* 예시: 영국협동조합연합회(Co-operatives UK)

### · 피해 현황 조사 결과

- 48%의 협동조합이 현금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고, 약 40%의 협동조합이 생존을 위해 직원에게 무급 휴가를 보내야 하는 실정이며 협동조합의 70%가 중장기적으로 비즈니스가 위태로운 심각한 상황임.

- 17%의 협동조합이 생존에 필요한 정부 지원금을 받는데 부적격이라는 판정. 7,215개 협동조합 중 절반 이상이 현재 생존하고 있지만 앞으로 몇 달 동안 확대된 지원 필요.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사업중단 대출제도(CBILS)가 사회적기업 및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 정부에 우선순위 정책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 추진 중

- 소기업 보조금 지원대상을 분명한 사회적 목적 추구하고 이익을 재투자하는 모든 소기업(연간 매출 632,000파운드까지)로 확대

- 소기업을 위한 코로나바이러스 사업중단 대출 제도(CBILS) 개선

- 사회적임팩트 금융기관에 추가 자본을 제공하여 협동조합, 공제조합 및 기타 사회적기업에 신속, 장기, 저리 및 무이자 대출 제공

- 지역공동체이익회사가 복권기금을 통해 자선단체 및 사회적기업에 제공되는 3억 7천만 파운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 영국에는 협동조합을 포함한 10만 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경제에 600억 파운드를 공헌하고 2백만 명의 직원을 고용. 적절한 지원의 부족은 일자리를 위협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기업이 활동하는 가장 취약한 지역 사회의 균형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임을 강조

5

## 코로나 19 위기와 사회적경제

□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정부의 지원(세제, 금융, 근로자 보호 등)을 받아야 하는 대상인 동시에 코로나 위기 속에서 사회적 미션(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 소비 및 유통, 근로자 보호 및 고용 유지, 지역사회 기여 활동 등)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역할

① 정부의 지원 범위에 규모, 업종과 관계없이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 포함 요구

②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또는 지방정부)에서 설치하는 비상대책 TF(비상대책위원회)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포함 요청

\* 900개 이상의 전기협동조합을 회원으로 둔 미국의 전국농촌전기협동조합연합회(National Rural Electric Cooperative Association, NRECA)

6

## 코로나 19 위기와 사회적경제

③ 각국 사회적경제 기업은 전례 없는 위기에 맞서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서로 공유, 대응을 본격화

\* 국제협동조합 연맹(ICA) : 의료품 수급과 같은 긴급조치부터 중장기, 단기적인 현안 등 협동조합들의 경험·니즈를 온라인 채널로 소통, 공유하는 Loomio 플랫폼 기반(뉴질랜드의 루미오 노동자협동조합이 개발·운영)

④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서비스의 확대, 코로나 19 관련 수요와 연관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 및 공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전환

- 마스크, 안면보호대, 손 소독제, 장갑 및 인공호흡기 생산을 지원하는 것부터 의료진 사용/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거나 필수 물품을 운송하는 것까지 다양

7

## 코로나 19 위기와 사회적경제

⑤ 노동자 보호, 고용 유지 및 신규 고용 창출

\* 이탈리아의 DocServizi : 프리랜서 예술가들의 협동조합으로서 공연 분야의 예술가들을 위한 실업 수당 확보를 위해 노력

\* 영국의 Coop Group : 코로나 위기로 촉발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매장 직원 모집을 공고한 결과 한 주 동안 기록적인 수치인 5,000명의 임시 직원 모집. 신입사원 대부분이 코로나 위기 후 실직자들로 매장의 진열대 관리, 온라인 주문 이행, 취약계층 고객 및 커뮤니티 지원 (Coop Group : 173년의 역사를 가진 소비자협동조합 그룹으로 조합원 460만 명, 매장 3,600여 곳, 직원 63,000명. 식료품 도소매, 의약품, 장례, 보험, 법률 서비스, 교육 등 여러 분야 서비스 제공)

⑥ 기업(연합회) 자체 연대기금 마련 및 사회적금융 기관들에 의한 사업 지원금, 저리 또는 무이자 대출 및 보증 등 제공

8

## 사회적경제의 대응 사례 - 보건의료

- (프랑스) 손 소독제 또는 안면 마스크와 같은 필요한 용품으로 생산을 전환하고 보건 종사자와 같은 일선 근로자를 포함한 고위험 인구들에게 보급

\* 공중 보건 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보건의료 근로자, 주요 기업의 조합원 및 근로자를 위한 보호 장비 보급 (Pwiiic 협동조합)

\* 3D 프린터를 사용해 안면보호대를 제작해 조산사, 간호원, 응급차 운전기사, 요양원 및 데이케어센터 종사자 등에게 보급(La Tréso 메이커스 협동조합)

- (스페인) 보건의료협동조합이 최선의 방법으로 그들의 병원과 의료진을 투입하여 전염병의 확산을 늦추고 감염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당국과 협력

\* 직원의 건강 보호와 안전 보장을 위해 재택근무 실시로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 의료진 및 간호 인력을 채용. 무료상담서비스 및 원격의료서비스(Asisa Live) 실시해 매주 2,500건을 처리, 공중 보건 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보건의료 근로자를 위한 연대기금 설치(Espriu Foundation)



9

## 사회적경제의 대응 사례 – 서비스(이동, 배송)

- (영국) 혼자 쇼핑을 할 수 없는 고령층과 취약계층 지원

\* 카디프의 택시기사 협동조합인 드라이브 택시는 고령층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료 쇼핑 제공

- (이탈리아) 택시협동조합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거나 65세 이상의 고령층에게 무료로 이동 서비스 제공(롬바르디아 택시협동조합)

\* Coop circuit에서 만든 제품을 구매해 슈퍼마켓 24(Supermercato24)와 협력해 65세 이상 노인 가정에 무료 배송(롬바르디아 협동조합)

\* 코로나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지역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로 택배 서비스를 제공. 지방자치단체협회와 협약을 체결해 모든 지역에서 지역 자원봉사 단체를 통해 가정으로 배송 서비스 제공(이탈리아 소비자협동조합 Coop Italia)



10

## 사회적경제의 대응 사례 - 서비스(교육, 인터넷 설치 등)

- (미국) 코로나 위기로 인해 학교가 폐쇄되고 온라인 원격 교육이 시작됨에 따라 저소득 농촌 지역 아동의 교육 접근성을 지원하기 위해 광대역 인터넷 설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 노스 캐롤라이나주 헬리팩스 카운티의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학교 주차장에 무료 공용 Wi-Fi 핫스팟을 설치(로어 노크 일렉트릭 협동조합)

- (이탈리아) 베르가모의 한 학교를 관리하는 협동조합은 20개 고등학교 클래스의 원격 수업을 시작하여 정규 학교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Imiberg사회적협동조합)
- (일본) 소외 계층 아동을 위한 도시락을 제공하는 초등학교 등 학교 폐쇄로 인해 증가하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 사회 파트너와 협력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ZEN-NOH)



11



## 사회적경제의 대응 사례 - 서비스(취약계층 지원)

- (영국) 코로나 위기로 인해 전국적으로 식품 자선단체의 기부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150만 파운드의 식품을 기부해 FareShare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도록 함. (Coop Group)
  - (이탈리아) 로디 지역의 슈퍼마켓 협동조합과 연대하여 상설 식품 모금대를 설치·운영(롬바르디아 협동조합)
- \* 밀라노 대도시 권역의 연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나는 내 이웃을 돌본다"는 활동에 참여해 독거노인의 고립 방지(Dar=Casa 협동조합)
- (프랑스) 위생과 식료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약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숙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바우처 공급 (Groupe UP 협동조합)

12

## 향후 전망과 과제

- 코로나 위기는 자유 시장자본주의를 다시 생각할 시간을 가져왔지만, 과연 코로나 위기가 기존 경제모델 및 패러다임을 전환하게 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인가?
- 코로나의 여파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젠 코로나 '이전의 상태(status quo ante)'로 돌아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의 거의 모든 대책에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사회든, 경제든 복원해 가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음.
- 대부분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자본주의, 공공의료보건체계, 사회보장제도 등의 개선 및 강화를 주로 얘기함.
-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책이 현재의 경제적 위기 해결만이 아닌, 기존 시스템을 부단히 바꿔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함.

13

## 향후 전망과 과제

- 전 세계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전염병에 대응하여 근로자, 조합원 및 지역 사회를 구호하기 위해 결집하고 있음.
  - 일부 국가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을 공공 구호 전략에 포함한 것은 국가 및 지방 정부가 위기 대응에서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임.
- 역사적으로 위기 기간 동안 협동, 연대 및 상호주의의 가치가 증명되었음.
  - 2007년-2008년 세계 금융 위기와 아르헨티나의 2001년-2002년 위기의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의 멤버십 및 매출이 급증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음.
- 현재의 위기가 종식되었을 때 지속가능한 경영(Triple Bottom Line)을 실천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가치와 비즈니스 모델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협동조합은 세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확실히 해결책에 기여할 수 있음. 유엔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는 데 있어 협동조합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임.

14

## 향후 전망과 과제

- 단기적으로는 긴급 사태를 관리, 최대한 많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생존하도록 해야 하고, 코로나 19 위기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 출구전략을 준비해야 함.
- 생태적 농업 전환
- 기후 변화에 대한 실천적 대응
- 윤리적 생산 및 소비 제고
-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 일자리 보호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 민주적 소유 및 참여(시민, 노동자 거버넌스) 기반 디지털 경제 구현

15

코로나19에 맞서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 간병인 및 환자들,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발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코로나 19로 가족과 이웃을 잃은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며...

**“재난은 많은 이들에게 강렬한 연대의식을 경험하게 하는 동시에 재난이 일어나기 전 사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와 약점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재난은 지옥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이 지옥은 유토피아를 향해 열린 문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도 있다.”**

(Paradise built in hell : the extraordinary communities that arise in disasters, Rebecca Solnit)

16



발제(3)

# 사회적 금융의 대응현황과 쟁점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실장)



# 사회적금융의 대응현황과 쟁점

2020. 5. 14, 장지연

##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현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지난 2020년 2월 3일부터 4월 27일(13주) 자체 조사한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초부터 소상공인의 매출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 비율 >

(단위 : -%)

조사일	2.3	2.10	2.17	2.24	3.2	3.9	3.16	3.23	3.30	4.6	4.13	4.20	4.27
소상공인	20.8	30.9	32.0	43.1	54.8	57.9	65.2	66.8	66.9	<b>69.2</b>	65.4	64.5	<b>56.7</b>
전통시장	20.8	34.7	31.7	46.6	57.5	58.9	63.9	<b>65.8</b>	65.5	65.0	65.4	61.1	<b>55.8</b>

## 사회적경제 조직 규모 (2018년)

구분	기업수	취업자수	매출액	노무비	비고
인증사회적기업	2,122	42,742	4,117,495	1,075,132	2018년 성과보고서
예비사회적기업*	1,400	5,600	560,000	140,000	
협동조합	14,526	42,712	2,591,900	642,500	제4차 실태조사
마을기업	1,514	4,500	164,500	41,100	행정안전부 자료
자활기업*	1,211	10,849	356,800	89,200	보건복지부 자료
소셜벤처*	300	1,200	120,000	30,000	
SE-협동조합 중복	-236	-2,408	-232,000	-61,000	협동조합+사회적기업
기타부문 중복	-300	-1,700	-78,000	-19,000	협동조합 법인 중복
합 계	20,537	103,495	7,600,695	1,937,932	

## 사회적경제 피해 현황

- '18년 사회적경제 매출규모는 약 7.6조원으로, 상반기 매출 감소로 인한 피해액은 약 5천억으로 추산됨
- 사회적경제 조직 고용인원은 약 10만명이고, 이중 절반에 가까운 약 4만 8천여 명이 취약계층인 것으로 파악됨
- 인건비 비중이 높고 유보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매출의 급격한 하락은 고용안정성 위협
- 문화예술·교육 업종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4~5배 인원이 프리랜서 종사자라면, 약 4만여 명이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추정됨

# 사회적경제 기업 대응 현황

- 고용유지 선언, 대응본부 설치
-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한도를 채워 보증부 대출, 또는 담보 대출
- 문화예술·관광 업종은 고용유지조치와 함께 휴업·휴직 시행
- 중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 긴급자금대출 신청
  - 신보, 지역신보 보증서 발급받지 못하면 사실상 어려움
-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선구매 캠페인, 사회적금융 융자지원 등 신청

유형	구분	공급 방식	공급 주체
전용자금	민간자금	민간 중개기관 통해 공급	기업CSR조직, 공익재단, 자조자금 등
	지자체 사회적경제자금	민간 중개기관 통해 공급	서울시, 경기도, 화성시 등
	서민금융 자금	민간 중개기관 통해 공급	서민금융진흥원
진입지원	사회적경제 보증부대출	시중은행 통해 공급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협동조합 금융	협동조합은행 통해 공급	신협, 새마을금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공공기관 통해 공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융기관 통해 공급	기업은행, 산업은행, 시중은행 (보증부)
크라우드펀딩	P2P 금융기관 통해 공급	비플러스 등	

## 사회적금융 대응 현황

- 민간기금, 지자체 기금, 서민금융자금 등 사회적경제 전용기금은 조속한 집행, 상환기간 연장, 규모 확대, 조건 완화 등 조치로 대응
- 그러나, 사회적경제 전용기금은 규모가 충분하지 못하고 대응 범위도 각기 제한적이어서 보편적 대안이 되지 못함

## 코로나19 대응 사회적금융 프로그램(안)

	항목	내용(안)
1	취약계층 고용유지 지원대출	취약계층 고용 높은 조직 유지지원, 대출 후 출자 등 전환
2	노동공제회 소액대출자금 공급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NGO활동가 공제조합 결성 지원
3	포용적일자리 펀드	고용창출력이 검증된 사회적경제 중견기업 중심 규모화 지원
4	전환적 뉴딜 임팩트 펀드	안전, 환경, 로컬 등 전환적 뉴딜 프로젝트 투자
5	노동자소유기업 인수전환 펀드	한계기업에 대한 노동자소유기업으로의 인수전환 지원
6	격차확대 예방 SIB	비대면 증가에 따른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 격차해소 SIB
	합계	

	2018	2016	비고
<b>고용수</b>	<b>107,603</b>	<b>87,253</b>	취업자수 합계
<b>중복제거</b>	<b>103,495</b>	<b>84,108</b>	
인증사회적기업			
<b>유급근로자 수 (취업자수)</b>	<b>42,742</b>	<b>39,195</b>	
- 평균	20.7	23.7	
<b>취약계층</b>	<b>26,086</b>	<b>23,858</b>	
취약계층 비율	61.0%	60.9%	
협동조합			
<b>종사자수</b>	<b>85,295</b>	<b>68,851</b>	취업자 + 무급형 비상근임원 + 무급형 자원봉사자
- 평균 종사자수	12.1	13.5	
<b>취업자수</b>	<b>42,712</b>	<b>27,129</b>	피고용자 + 무급형 상근임원 + 유급형(실비보상) 자원봉사자
- 평균 취업자수	6.1	5.3	
<b>피고용자수</b>	<b>31,335</b>	<b>20,409</b>	임금근로자 + 유급형임원 (급여 목적으로 주 1시간 이상 종사)
- 평균 피고용자수	4.4	4.0	
<b>임금근로자수</b>	<b>26,579</b>	<b>17,707</b>	여성 59.0% (일반 42.8%), 55세 이상 38.7% (28.2%)
- 평균 임금근로자수	3.8	3.5	
<b>임금근로자 중 취약계층</b>	<b>11,243</b>	<b>7,662</b>	55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기초생활수급 등
- 비중	42.3%	43.3%	

## #1. 취약계층 특별 고용유지지원 대출

- 직원 가운데 일정 비율 또는 일정 수 이상이 취약계층인 사회적경제 기업 이 코로나로 경영난에 처하는 경우 추가적인 고용유지지원금 대출
- 자금대출 1년 후 고용유지 상태를 확인해 출자 또는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높이고 취약계층 고용흡수력 보존
  - 예)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 (paycheck protection program)
- 코로나 피해액 5천억 가운데 2/3가 노무비, 이 금액의 절반을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정부가 지원한다면 기업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금액은 약 3,300억원 ⇒ 이 금액의 약 15~3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창업-개인	창업-법인
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9.4%	2.7%	0.0%	1.1%
B	광업			0.0%	0.1%
C	제조업(10~34)	8.9%	28.8%	7.0%	23.3%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35)	1.1%	0.2%	0.0%	0.2%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1.2%	2.5%	0.1%	0.6%
F	건설업(41~42)	2.5%	5.2%	2.0%	11.1%
G	도매 및 소매업(45~47)	22.1%	11.3%	26.9%	28.1%
H	운수 및 창고업(49~52)	2.4%	0.5%	5.0%	3.0%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3.6%	3.4%	31.6%	2.6%
J	정보통신업(58~63)	3.9%	3.6%	0.5%	5.9%
K	금융 및 보험업(64~66)	0.0%	0.0%	0.2%	1.5%
L	부동산업(68)	1.3%	0.3%	3.9%	5.2%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3.6%	1.7%	1.9%	7.8%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3.4%	9.3%	1.4%	5.4%
P	교육 서비스업(85)	15.0%	10.4%	5.4%	1.9%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5.4%	8.7%	1.7%	0.2%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9.0%	9.9%	4.7%	1.0%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6.5%	1.5%	7.6%	1.3%

## #2. 불안정 노동자 공제조직 육성

-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이 분야·지역별 공제조직을 결성하면 소액대출 자금을 공급하여 긴급생계자금으로 상호융통하도록 지원
  - 일반 창업기업 대비 교육, 문화예술, 돌봄 분야 창업 활발
- 프리랜서 협동조합, 사단법인 형태의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결합되어 있는 불안정 노동자를 중심으로 공제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
  - 자활 영역 지역별 '주민협동회',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안산/시흥 영세사업체 노동자 생활공제 '좋은이웃', 화성노조 '봉제인공제회'
- 사업개시 위한 마중물로 소액대출 용도 기초재원 장기대출 방식 지원



표준산업분류	기업수	근로자수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3%	1%	
제조업(10~34)	29%	24%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35)	0%	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2%	3%	
건설업(41~42)	5%	2%	
도매 및 소매업(45~47)	11%	9%	
운수 및 창고업(49~52)	0%	0%	
숙박 및 음식점업(55~56)	3%	2%	
정보통신업(58~63)	4%	2%	
금융 및 보험업(64~66)	0%	0%	
부동산업(68)	0%	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2%	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9%	20%	***
교육 서비스업(85)	10%	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9%	27%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10%	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2%	1%	

### #3. 고용창출력 있는 SE 통한 일자리 창출

- 돌봄·제조·시설관리 등 고용창출력이 높은 분야 사회적기업에 투자를 통해 생산력을 확대하고 사회적일자리 프로그램을 연계해 고용 창출
- (가칭)‘포용적 일자리 펀드’를 마련해 경영역량이 안정되고 고용확대 목적의 성장계획을 제시하는 경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육성 → 사업부문 신설, 지점 설치, 자회사 설립, 컨소시엄 방식으로 합작회사 설립 등 허용
- 사회적경제조직의 다양한 법인격을 고려해 지분투자와 장기대출 병행  
 사회적기업 중 주식회사 법인격은 63.1%, 사단법인, 협동조합 등 다양  
 ⇒ 일반적인 펀드투자로 접근 불가능한 비영리조직 포괄 필요

## #4. 안전, 환경, 로컬 등 ‘전환적 뉴딜’ 투자

- 디지털·비대면 산업 육성 기조 속에 ICT 역량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려는 혁신주체 육성
  - 안전관리 체계의 대대적 전환, 자원순환 체계의 혁신, 지역기반 돌봄망 확충 등
- 임팩트투자를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려는 소셜벤처를 발굴·육성하여 영역 전반의 문제해결력 강화
- (가칭) ‘플랫폼 공공성 워킹그룹’ 논의를 통해 ‘디지털 전환’ 흐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임팩트투자 가이드라인 도출
  - (1) 이해관계자 포괄 거버넌스, (2) 고용·거래와 관련한 공정한 사업정책, (3) 기술을 활용한 고도화, (4) 지역단위 가치사슬 협력 등시

## #5. 종업원 소유기업으로 인수전환 지원

- 한계기업이 등장하면 직원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지속시킬 수 있는 단위를 선택해 노동자 소유기업으로 전환·운영하도록 인내자본 공급
-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에 담긴 내용으로 계획에 수반하는 금융지원 체계 마련 차원
  - 대구지역 택시협동조합 9개로 증가 (전체 조합원 1천여 명)
  - 화성시 부도난 중소기업 직원협동조합 인수전환 운영

## #6. 격차확대 예방을 위한 SIB 민간투자

- 디지털 전환을 통해 발생 가능한 돌봄 사각지대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차원의 격차를 완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SIB 사업 지원
- 광역지자체 5곳, 기초지자체 3곳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조례 제정 상태

## 사회적금융 기관들은..

- (모니터링-피드백) 기업들의 정책자금 활용 현황을 모니터링해 정책당국에 시기적절하게 피드백함과 동시에 전용자금으로 사각지대에 대응하기 위한 작업을 해 나가야
- (상품개발-재원마련)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 위험에 대처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사업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자금마련과 상품 개발을 시작해야

## 이런 상황이 또 닥친다면..

- (기업)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조달 채널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
  - 위기 상황에 어떤 채널이 유효하게 가동될지 알 수 없으므로 가급적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해 보면서 여러 문턱을 넘어가 본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필요
- (중개기관)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는 경험을 확대할 필요
  - 연계 상품을 개발하거나 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서로를 알아가는 경험이 축적되어 있었다면 위급한 상황에 병목현상 해소 방안이 좀 더 빠르게 나왔을 수도
- (사회적금융 전반) 보편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전용기금 필요
  - 연계 상품을 개발하거나 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서로를 알아가는 경험이 축적되어 있었다면 위급한 상황에 병목현상 해소 방안이 좀 더 빠르게 나왔을 수도

## 사회적금융 전용자금 마련 및 활용성 제고 방안

-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설치, 사회적금융 관련 제도기반 마련의 내용을 담은 입법 추진
- (서민금융법 개정) 휴면예금을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서민금융법 개정
- (지방기금법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기금의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기금법 개정 추진

## 코로나 위기, 사회적경제의 접근법과 역할 사회적금융의 대응현황과 쟁점

- 장 지 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유례없는 3-4월을 뒤로하고 하루 확진자 한자릿수 대 소식 속에 시작한 5월은 삶의 면면을 구성하는 촘촘한 고리들이 차츰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글로벌 교류에 기반한 영역은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모임과 행사가 재개되고 등교개학이 시작되면 생활의 상당 부분이 예전처럼 돌아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느닷없이 닥친 질병과의 싸움에서 일정 수준 통제력을 확보한 지금, 다시 인간들끼리의 문제를 풀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코로나 이후 어디까지 회복이 가능하고, 어디서부터 이전과 다른 상태에 놓이게 되는가? 또는 새로운 상태로 이행시켜야 하는가? 재난의 흔적은 누구에게 남겨지고, 복구의 과정은 어떠해야 하며, 고통과 손실은 어떻게 분담해야 하나?

공동체는 자신에게 닥친 사건·사고를 해석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공유하는 가치와 원칙을 확인하면서 스스로를 만들어 간다. 전지구적으로 돌아가는 일상에 브레이크를 걸고 개개인 모두의 행동에 일정한 제약을 부과한 이번 사태는, 상황을 빠르게 수습해 모든 그래프와 수치를 제자리로 돌리려는 노력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강렬한 의심을 남겨 주었다. 이곳의 사정은 후차적으로 미루고 여러 면에서 부지런히 배우고 따라가려 했던 저곳의 시스템이 위기 상황에 필수적인 물품과 서비스마저 서로 융통할 수 없는 상태임을 함께 목격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보다 근본적인 성찰과 변화의 구상을 담은 회복의 과정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이유이다.

정부는 4월말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첫회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비대면 산업 중심 “규제혁파를 통한 산업육성 방안”을 비중있게 발표하였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방안”도 예고하고 있는데, 이 또한 디지털 기반 대형 IT 프로젝트 기획추진을 대표적 사례로 언급하고 있다. 아직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사회경제 질서를 염두에 둔 통합적 접근보다는 그간 경제를 떠받치고 산업을 육성해 온 관행대로 대응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가 충격에서 회복되어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가 책임있는 실천 단위로 대안적 질서를 염원하는 이들과 함께 균형추 역할을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사회적경제 조직의 피해복구와 회복 방안 역시 보다 큰 틀에서 검토되고 추진되는 것이, 유례없는 피해에 대한 대응력과 재원확보 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것이다.

## I. 피해대응과 고용유지

2~4월 기간 소상공인들의 매출액 변화를 조사해 발표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2월에 약 30%, 3~4월에는 60%씩 매출이 감소하였다.<sup>1)</sup> 조사에서는 4월부터 서서히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5~6월 사이 예년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연중 매출 감소는 15~20% 수준이 된다. 문제는 이 정도가 기본이라는 것이고, 업종에 따라 훨씬 더딘 분야가 있으며, 국제교역의 불확실성과 실업증가로 인한 경기침체, 감염병 재유행 가능성 등으로 악화될 가능성마저 존재한다는 사실이 마음을 졸이게 한다.

'18년 사회적기업 매출규모는 4.1조원이고 협동조합은 2.6조원으로, 중복을 제외하고 두 부문을 합치면 6.5조원이다. 여기에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부문까지 더하면 전체 매출은 약 7.6조원 규모가 된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당기순이익율이 각각 1.9%, 4.0%로 낮은 수준이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매출총이익율은 약 35%이고, 고정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7%이다. 이 구조를 대입하면 사회적경제 전체 매출이 20% 감소할 때 연간 매출총이익은 5천억 정도 감소한다. 인건비 비중이 높고 유보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매출의 급격한 하락은 고용안정성을 위협한다.

### 가. 피해대응 현황

기업들은 미리 받아둔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한도를 채워 보증부 대출을 받거나 담보 대출을 받기도 하고,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용자사업을 찾아보며 견디고 있다.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유급 또는 무급으로 휴업·휴직을 시행하면서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이 경우 정부로부터 1년에 180일 한도 안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휴직·휴업 수당의 기업체 부담분과 인건비 외 비용은 대출 등을 통해 해결한다.

영업이 저하된 상태에서 사업체를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실되는 비용이 대출로 쌓이는 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크기의 자금은 이런 형태로 공급되고 있다. 대출 방식의 해결을 부담스러워하는 기업은 기부·후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거나 지원사업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도 한다.

일시적으로 늘어난 부채는 만기를 조정해 가며 영업활동으로 상환하거나 특별한 상황에서 출자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기업은 배당이 원천적으로 금지·제한되어 있기도 하고 상장이 드물어 일반적인 금융시스템 안에서 출자전환은 어렵다. 현실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낮은 영업이익률을 감안하면 좀 더 유연한 지원방안이 보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1)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소상공인, 코로나19 타격 받고 ‘기지개’”, 2020. 4. 29

## 나. 고용유지를 위한 추가 지원

관련해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을 참고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인건비, 임대료, 주택담보대출 및 부채상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대출하되,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용도에 맞게 사용된 금액만큼 탕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유사한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려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기업체 부담분 인건비와 임대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대출하고 1년 후 고용유지 상태를 확인해 출자전환 또는 탕감하는 ‘사회적경제 특별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직원의 30% 이상이 취약계층인 기업부터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18년말 사회적경제 고용규모는 약 10만명이다(<붙임1>).<sup>2)</sup> 취약계층 근로자는 사회적기업에 2.6만명, 협동조합에 1.1만명이 근무하고 있다. 여기에 자활기업 참여자 1.1만명을 더하면 약 4.8만명의 취약계층 근로자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근로자 본인이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가족도 어려운 처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 실업의 위협은 더욱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

앞서 코로나 피해액을 약 5천억원으로 가정했는데, 그중 2/3는 노무비이고 이 금액의 약 절반을 고용유지지원금 등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면 기업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금액은 약 3,300억원이 된다. 이 금액의 30% 정도를 정부에서 사회적경제 긴급지원 예산으로 편성해 고용유지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원한다면, 고용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약속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다. 불안정 노동자를 위한 안전망 확충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사회가동이 중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이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1분기 경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는 서비스업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sup>3)</sup>

사회적경제 기업의 업종별 분포 현황을 보면, 사회적기업은 제조(28.8%) - 도소매(11.3%) - 교육(10.4%) - 문화예술(9.9%) - 시설관리·사업지원(9.3%) - 보건·사회복지(8.7%) 업종 순이고, 협동조합은 도소매(22.1%) - 교육(15.0%) - 농림어업(9.4%) - 문화예술(9.0%) - 제조(8.9%) 업종 순이다. 일반 창업기업과 비교하면 사회적경제 전반적으로 교육, 문화예술, 돌봄 분야에서 창업이 활발하고, 사회적기업은 제조업과 시설관리, 협동조합은 농림어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붙임2>).

2) 생협, 신협, 농수축협 등 개별법 기반 협동조합은 제외한 수치

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제6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20. 5. 1

교육·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은 협동조합에 임금근로자가 아닌 조합원 신분으로 참여해 일감을 함께 확보하고 나누는 방식으로 일한다.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직원 외에 고용이 아닌 거래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종사자들이 많다. 이 분야는 모두 피해가 큰 서비스업종이면서도 이처럼 피고용자 신분이 아닌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부조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 93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노무 미제공, 또는 소득감소 내역이 확인되면 최대 3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조치는 긴급상황에 임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회적경제 영역 안에서도 조합원이나 거래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이 참여하는 ‘노동공제회’ 설립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는데, 이제 좀 더 과감한 구상과 실천이 필요하고 또 가능한 시간이 되었다.

노동공제회는 상호부조와 소액대출을 통해 질병·상해·실업 등 크고 작은 규모의 재난에 대처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다. 조합원의 회비와 출자금을 기반으로 설립될 수 있으나 회원들이 모일 수 있는 마중물 성격의 초기 자금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대로 운영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된다. 국내 대부분 공제회는 초기 재원을 정부로부터 출연받으면서 개별법 기반으로 출발하였다. 과학기술인공제회는 2002년 설립 당시 정부로부터 200억을 출연받았고 이후 과학기술발전장려금 형태로 정부와 민간 재원을 단계적으로 추가 조성한 바 있다.

자활 영역의 <주민협동회>, 공익활동가 공제조직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안산·시흥 지역 노동자들이 설립한 <좋은이웃>, 화섬식품노조 산하 <봉제인공제회> 등 여러 가지 시도가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는데 일정 수준의 재원이 받쳐 준다면 불안정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크게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5월부터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자발적 기부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조성되는 자금의 일부를 활용해 불안정 노동자들을 위한 공제회 설립을 지원한다면 실업부조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사회안전망을 확장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또는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 목적으로 조성된 미소금융재단의 자금을 전향적으로 활용해 추진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 II. 위기극복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정부는 4월말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위기와 고용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일자리 55만개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sup>4)</sup>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위기가 시작되었고 향후 수출이 감소하면 대량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는 비대면 서비스산업 육성 등 ‘디지털 뉴딜’, 생활형 사회간접자본을 포함한 확장된 개념의 ‘SOC뉴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메꾸는 ‘사회적 뉴딜’ 등이 거론된다.<sup>5)</sup>

시민단체, 종교, 노동계, 사회적경제 등 범시민사회가 참여해 4월말 출범한 「코로나19 사회적경제 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서도 공기업, 시민단체, 사회적경제 등이 참여하는 ‘일자리분과’를 구성해 앞으로 활동해 나갈 계획이다. 위기 상황에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는 작업에 사회적경제 영역은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고 사회적금융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가. 고용창출력이 검증된 사회적경제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직후 설립된 많은 기업들은 비영리조직, 시민단체가 참여해 2003년부터 진행한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결과로 생겨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의 지원과 시민사회의 사회적자본이 결합해 생겨난 것이 지금의 사회적기업들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이제 평균매출 20억 규모로 성장해 많은 기업들이 소기업 단계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이제는 이들 사회적기업이 모태가 되어 새로운 일자리 사업을 해 볼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

사회적기업 근로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27%, 제조업 24%,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 20%가 종사하고 있어, 이들 돌봄·제조·시설관리 3개 업종에 전체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70%가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업종들은 코로나19의 여파가 상대적으로 덜하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수요가 감소했다더라도 회복의 과정에 사회적책임조달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 협조를 요청해 볼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다.

이 분야 기업 가운데 경영역량이 안정적이고 고용확대 목적의 성장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일자리 사업과 함께 지원·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성장계획은 자체적으로 사업부문을 신설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이해관계자와 사업모델이 이질적이라면 자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으며, 몇 개 기업의 역량을

4)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2020. 4. 22

5) 이정훈, “실업·폐업 급한 불 끈 뒤 … ‘한국판 뉴딜’ 3대 사업 띄운다”, <한겨레신문>, 2020. 4. 22

혼합해 컨소시엄 방식으로 합작회사를 만드는 시도도 가능할 것이다.

뉴딜사업은 일자리지원과 함께 기업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투자가 병행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사회적경제조직을 법인격으로 구분했을 때 '18년 기준으로 상법상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63.1%이다. 약 36.9%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 등 다양한 법인격에 기반하고 있다. 일반적인 투자펀드로 설계하는 경우 주식회사가 아닌 조직들은 사실상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목적의 일자리 펀드를 만든다면 운용 방식을 달리 고민해야 한다.

## 나. 안전, 환경, 로컬 등 전환적 뉴딜을 위한 섹터 간 협력

한국판 뉴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안전관리체계의 대대적인 전환, 자원순환 체계의 혁신, 지역기반 돌봄망 확충 등 사회적 난제로 던져져 있는 문제들에 대응하는 전환적 뉴딜을 이끌어 내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

다양한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원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사업을 지속시킬 방안을 찾게 될텐데,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좋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유력하게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관련 분야에서 오래 활동해 온 조직들과 함께 사회적경제 지원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우리 사회에 사회적경제가 확산되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이다.

새롭게 형성될 영역은 (1) 이해관계자를 포괄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2) 고용·거래와 관련한 공정한 사업정책, (3) 기술을 활용한 고도화, (4) 지역단위 가치사슬 협력 등을 공통된 핵심 요소로 추구하면서 만들어 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서는 개별 기업 단위 창업지원 방식에서 벗어난 접근도 필요할 것이다.

일례로 플랫폼사업의 경우 '플랫폼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주의 플랫폼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불안정 노동자들이 공제조합 등 다양한 경제적 결사체를 결성해 지역사회를 근간으로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하고, 이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려는 벤처기업을 함께 육성하는 방법이 있다.

신생 IT기업들은 대부분 플랫폼 모델을 머릿속에 그리고 출발하지만, 실제 오프라인에 침투해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규제혁신을 과도하게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규제를 혁신하면서 시장에 진입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사업체들의 직접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플랫폼 스타트업이 위에 나열한 몇 가지 핵심 정책을 채택하기로 하는 경우 임팩트투자 기관이 이들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사업을 육성하고, 사업이 일정 궤도에 오르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플랫폼노동자 조직이나 지역사회 등에 지분을 양도하고 철수하는 공동체 인수(Community Buyout)를 시행할 수 있다.

#### 다. 노동자 소유기업 인수전환 지원

2~3년 사이 대구 등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택시회사의 노동자협동조합 전환 흐름이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다. 사회적경제가 고령의 소유주가 물러나는 과정에서 기존사업체를 보존하면서 부드럽게 철수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부도난 중소기업을 직원들이 인수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 사업을 계속해 나가는 사례도 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과정에서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기업이 등장하는 경우, 그 업을 잘 이해하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지속시킬 수 있는 단위를 선택해 노동자 소유기업으로 전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이다. 직원들이 퇴직금 등으로 일정 수준의 자본금을 마련할 수는 있지만 사업체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자 소유기업에 대한 인수자금을 인내자본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금 마련이 필수적이다.

### III. 사회적금융 대응현황과 쟁점

<표 1>은 사회적금융 공급주체와 방식을 대출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위에서부터 차례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해당자금을 접하고 친숙하게 사용하게 된 순서를 나타낸다고 봐도 무방하다. (1) 민간기금,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서민금융자금은 사회적경제 전용예산을 마련해 두고, 이 자금을 비영리 민간조직을 통해 현장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돌아오고 있다. (2) 사회적경제 보증부 대출부터 협동조합 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크라우드펀딩은 이차보전, 목표제 시행, 전용상품 출시, 수수료지원 등의 방법을 사용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전자는 사회적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자금을 마련하는 ‘전용기금’ 방식이고, 후자는 기존 공급체계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진입을 지원하는 ‘진입지원’ 방식이다.

표 1. 사회적금융 공급주체와 방식 (대출 중심)

유형	구분	공급 방식	공급 주체
전용 기금	민간기금	민간 중개기관 통해 공급	기업CSR조직, 공익재단, 자조기금 등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민간 중개기관 통해 공급	서울시, 경기도, 화성시 등
	서민금융 자금	민간 중개기관 통해 공급	서민금융진흥원
진입 지원	사회적경제 보증부대출	시중은행 통해 공급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협동조합 금융	협동조합은행 통해 공급	신협, 새마을금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공공기관 통해 공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기관 통해 공급	기업은행, 산업은행, 시중은행 (보증부)
크라우드펀딩	P2P 금융기관 통해 공급	비플러스 등	

전용기금 방식의 자금들은 코로나19 이후 자금의 집행 시기를 앞당기고, 조건을 완화하며,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기금이 긴요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규모가 충분하지 못하고 대응 범위도 각기 제한적이어서 아직 이런 자금들이 보편적 대안이라고 제시할 수는 없다.

현재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중심으로 정부의 코로나19 긴급대출이 시행되고 있어 이 채널을 중심으로 위기를 헤쳐가고 있다. 그나마 '18년부터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확대로 많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보증서를 이미 발급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증부대출 방식에 익숙해진 상당수 기업들이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증한도를 다 채웠거나 신규발급 요건이 되지 않는 기업들은 사회적경제 전용기금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코로나 초기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을 통해 정책자금이 지원된다는 계획이 발표되고 병목현상으로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정책금융기관과 간담회 자리가 마련되었다. 서민금융진흥원 자금,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사회가치연대기금 등 도매기금을 취급해 본 민간 중개기관들과 협력해 병목현상을 해소해 보자고 제안하였으나 쉽지 않아 보였다. 이후 정책자금 병목현상은 기업은행과 시중은행들이 지역신보의 보증업무를 위탁받아 대출업무를 분담하면서 차츰 완화되어 가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방식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이번 일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조달 채널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위기 상황에 어떤 채널이 유효하게 가동될지 알 수 없으므로 가급적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해 보면서 여러 문턱을 넘어가 본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둘째,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또한 다양한 금융기관과 협력하는 경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연계 상품을 개발하거나 협력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서로를 알아가는 경험이 축적되어 있었다면 위급한 상황에 병목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이 좀 더 빠르게 나왔을 것이다. 그나마 정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으로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들이 사회적경제 조직을 인지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어서 위급한 상황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비영리 시민단체들은 금융기관 어디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전용기금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보편적 수요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경기도, 화성시 등 사회적경제기금이 조성된 지역은 해당 기금으로 사각지대를 파악해 어느 정도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사회적금융 기관들은 기업들의 정책자금을 활용 현황을 모니터링해 정책당국에 시기 적절하게 피드백함과 동시에 전용자금으로 사각지대에 대응하기 위한 작업을 해나가야 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 위험에 대처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사업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자금마련과 상품개발을 시작해야 한다.

**표 2. 코로나19 대응 사회적금융 프로그램 예시**

(단위: 억원)

항목	소요액	내용(안)
사회적경제 특별 고용유지 지원금	500	취약계층 고용 높은 조직 유지지원, 대출 후 출자 등 전환
노동공제회 소액대출자금 공급	300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NGO활동가 공제조합 결성 지원
포용적일자리 펀드	500	고용창출력이 검증된 사회적경제 중견기업 중심 규모화 지원
전환적 뉴딜 임팩트 펀드	500	안전, 환경, 로컬 등 전환적 뉴딜 프로젝트 투자
노동자소유기업 인수전환 펀드	500	한계기업에 대한 노동자소유기업으로의 인수전환 지원

코로나19의 재난에 대응하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에 기대되는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기금의 조성이 시급하다.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에서는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지금은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이 자금을 풀어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금융의 제도적 기반 마련까지 포함하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이 긴급성을 갖고 추진되어야 한다. 이번 위기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지자체와 민간 주체들의 협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자체 기금의 민간위탁을 금지하는 지방기금법 또한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자금이 마련되기까지 손놓고 기다리기 보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정부 자금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도매기금 운용기관에 위탁해 필요한 일이 필요한 시기에 일어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한다.

## 붙임1. 사회적경제조직 규모

- '18년말 기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 고용규모는 약 10만명이고, 연간 노무비는 약 2조원으로 추산됨 (월 1,600억원 규모)
- 사회적기업 판매관리비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67.2% (고정비의 약 2/3가 노무비)
- 당기순이익 평균은 사회적기업 3,760만원, 협동조합 1,460만원 (당기순이익률 1.9%, 4.0%)

표 3. 2018년 사회적경제조직 규모

(단위: 개, 명, 백만원)

구분	기업수	취업자수	매출액	노무비	비고
인증사회적기업	2,122	42,742	4,117,495	1,075,132	2018년 성과보고서
예비사회적기업*	1,400	5,600	560,000	140,000	
협동조합	14,526	42,712	2,591,900	642,500	제4차 실태조사
마을기업	1,514	4,500	164,500	41,100	행정안전부 자료
자활기업*	1,211	10,849	356,800	89,200	보건복지부 자료
소셜벤처*	300	1,200	120,000	30,000	
SE-협동조합 중복	-236	-2,408	-232,000	-61,000	협동조합+사회적기업
기타부문 중복	-300	-1,700	-78,000	-19,000	협동조합 법인 중복
합 계	20,537	103,495	7,600,695	1,937,932	

\* (예비사회적기업) '19년말 기업수 1,459개 → '18년 1,400개로 추정

표 4. 2018년 사회적경제조직 기업당 평균

(단위: 개, 명, 백만원)

구분	유효기업*	취업자수*	매출액	노무비*	당기순이익	비고
인증사회적기업	2,062	20.7	2,007	524	37.6	월평균 임금 182.7만원
예비사회적기업	1,400	4.0	400	100		
협동조합	7,050	6.1	368	91	14.6	월평균 임금 158.2만원
마을기업	1,514	3.0	109	41		
자활기업	1,211	9.0	295	89		
소셜벤처	300	4.0	400	30		
합 계	13,537					

\* (유효기업) 인증사회적기업은 성과보고서 제출기업수, 협동조합은 실태조사 결과 운영기업수 반영

\* (취업자수) 인증사회적기업 - 성과보고서의 유급근로자수

예비사회적기업 - '15년 서울시 예비SE 평균고용 7.0명 → 고용 4.0명 적용

협동조합 - 실태조사 결과 취업자수 (임금근로자, 무급상근임원, 유급자원봉사자 포함)

마을기업 - '15년 서울시 마을기업 평균고용 2.3명 → 평균고용 3.0명 적용

소셜벤처 -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한 기준 적용

\* (매출액) 예비사회적기업 - '15년 서울시 예비SE 평균매출 4.3억 → 매출 4.0억 적용

자활기업 - '17년 평균매출 2.95억 → '18년 평균매출 동일한 수치로 가정

소셜벤처 -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한 기준 적용

\* (노무비) 협동조합 - 월평균임금과 취업자수 기반 추정

예비SE,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 매출액의 25% 적용 (사회적기업 26%, 협동조합 25%)

## 붙임2. 사회적경제조직 업종 현황

- 사회적기업은 제조(28.8%) - 도소매(11.3%) - 교육(10.4%) - 문화예술(9.9%) - 시설관리·사업지원(9.3%) - 보건·사회복지 (8.7%) 업종 순으로 분포
- 협동조합은 도소매(22.1%) - 교육(15.0%) - 농림어업(9.4%) - 문화예술(9.0%) - 제조(8.9%) - 협회·개인서비스(6.5%) 업종 순으로 분포
- 일반 창업기업과 비교하면 사회적경제 조직이 교육, 문화예술, 돌봄 분야에 상대적으로 높게 분포하고, 사회적기업은 제조업과 시설관리, 협동조합은 농림어업 비중이 높음

표 5. 사회적경제조직 업종 분포 (기업수)

	산업분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창업기업법인	창업기업개인
	(기업수)	2,062	14,526	209,906	1,537,885
	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2.7%	9.4%	1.1%	0.0%
	B 광업	-	-	0.1%	0.0%
	C 제조업(10~34)	28.8%	8.9%	23.3%	7.0%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35)	0.2%	1.1%	0.2%	0.0%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2.5%	1.2%	0.6%	0.1%
	F 건설업(41~42)	5.2%	2.5%	11.1%	2.0%
서비스업	G 도매 및 소매업(45~47)	11.3%	22.1%	28.1%	26.9%
	H 운수 및 창고업(49~52)	0.5%	2.4%	3.0%	5.0%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3.4%	3.6%	2.6%	31.6%
	J 정보통신업(58~63)	3.6%	3.9%	5.9%	0.5%
	K 금융 및 보험업(64~66)	0.0%	-	1.5%	0.2%
	L 부동산업(68)	0.3%	1.3%	5.2%	3.9%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1.7%	3.6%	7.8%	1.9%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9.3%	3.4%	5.4%	1.4%
	P 교육 서비스업(85)	10.4%	15.0%	1.9%	5.4%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8.7%	5.4%	0.2%	1.7%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9.9%	9.0%	1.0%	4.7%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1.5%	6.5%	1.3%	7.6%
	기타		0.7%		
	(서비스업 비중)	60.6%	76.9%	63.6%	90.8%

- \* 「2018 사회적기업 성과보고서」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노동연구원, '19. 11)
  - 인증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2018년 사업보고서 분석
- \*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기획재정부, 한국노동연구원, '20. 3)
  - '18년 말 기준 신고·인가된 협동조합·연합회 대상 행정조사 및 표본조사
- \* 「2019 창업기업 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20. 4)
  - 창업 7년 이내 기업('11.1.1. ~ '17.12.31. 창업 기업) 대상, 8천개 표본 조사



좌장 및 토론

**코로나19**

**위기의 성격과 대응방향**

**정태인**

(전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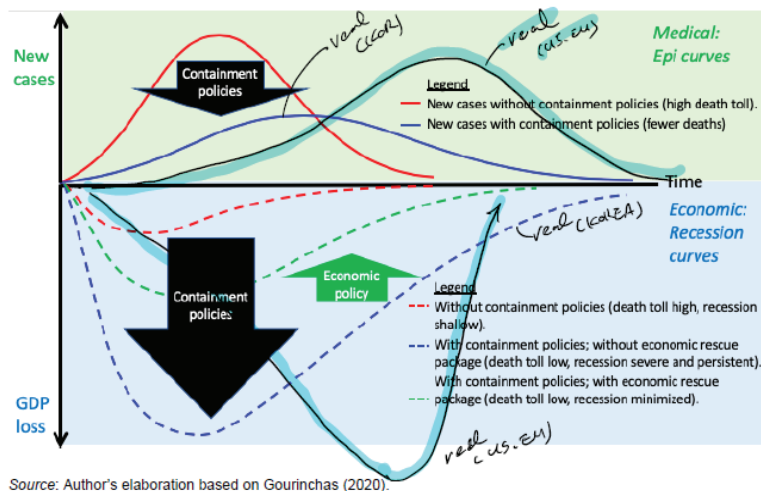


# 코로나-19 위기의 성격과 대응방향

정태인 (독립연구자, 경제학)

## 방역과 경제의 관계

Figure 3 The recession, made worse by containment policy, can be mitigated with economic pol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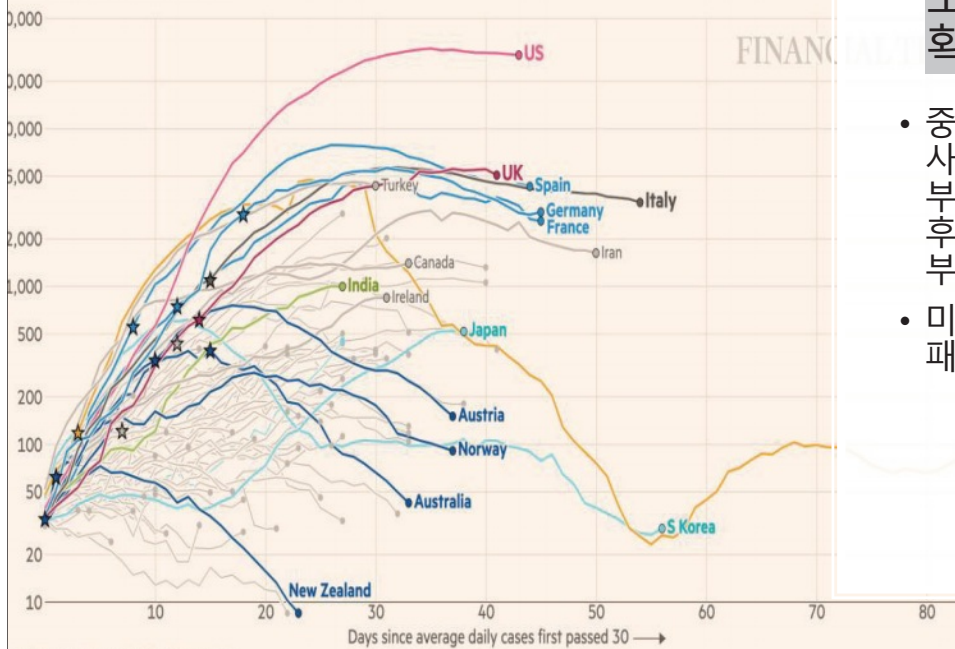


Baldwin, 2020, p5

- 하늘색(+검은실선)이 실제 상황
  - 집단면역전략(붉은 선)의 실패 : 초기 이탈리아, 영국, 미국의 초기 대응 실패 = 집단패닉으로 발전 -> 강력한 봉쇄 정책 -> 경제위기
  - 경제를 그린 아래 선도 하늘색(+검은 실선)이 현실
- = 한국의 성공

Several countries have turned the corner, with numbers of new cases now in decline

Daily confirmed cases (7-day rolling average), by number of days since 30 daily cases first recorded  
Stars represent national lockdown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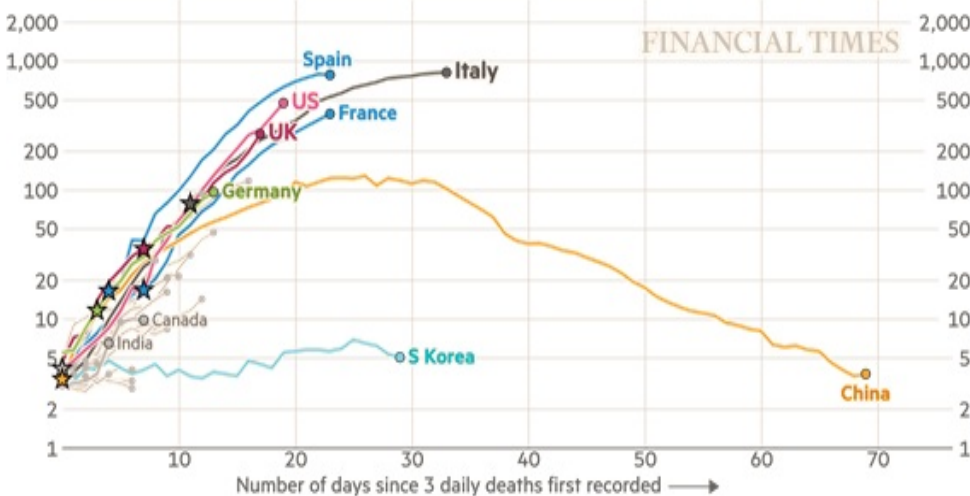
Graphic: John Burn-Murdoch / @burnmurdoch

##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추이(4.19)

- 중간 정도의 통제 정책을 사용한 한국, 3월 20일 경부터 확진자가 100명 전후로 증가하다 4월 19일부터 10명 수준에서 댄싱
- 미국과 유럽은 대표적 실패국가들

Italy and Spain's daily death tolls are plateauing, but in the UK and US every day brings more new deaths than the last

New deaths with coronavirus per day, by number of days since 3 daily deaths first recorded  
Stars represent national lockdown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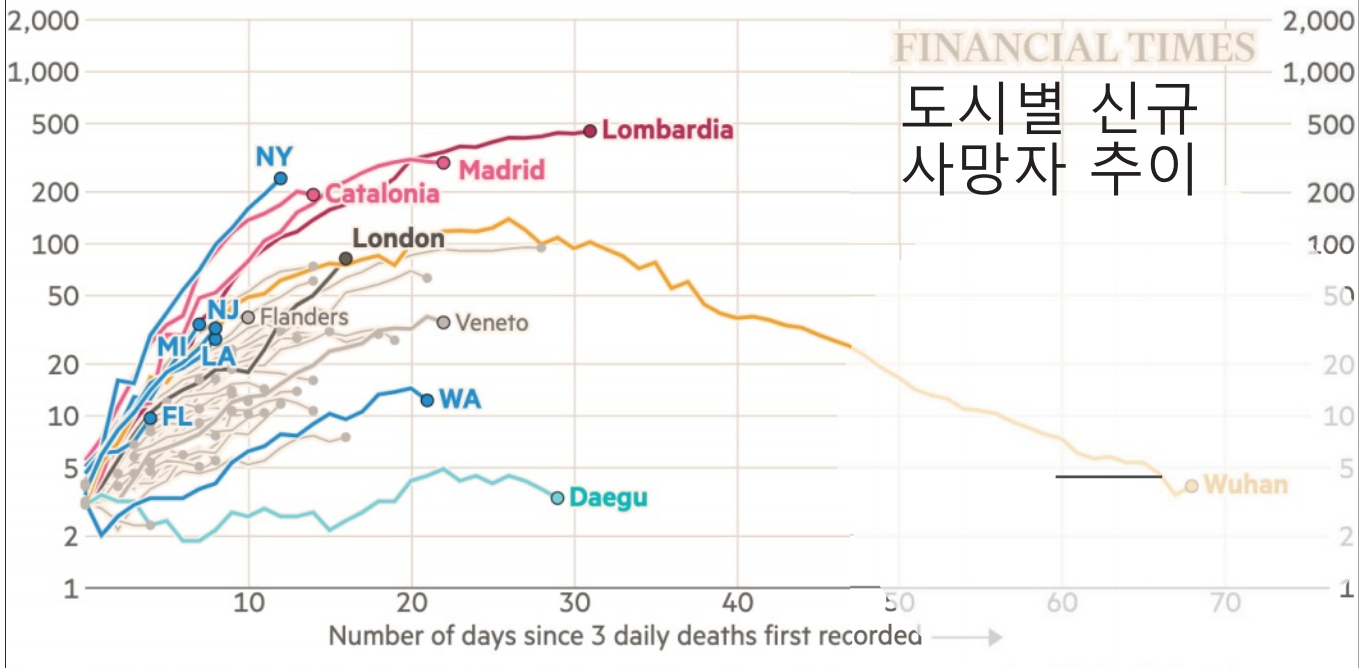


FT graphic: John Burn-Murdoch / @burnmurdoch  
Source: FT analysis of European Centre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Worldometers; FT research. Data updated April 01, 19:00 GMT © FT

## 사망자 추이

IS CLIMBING EVER FASTER IN NEW YORK AND LONDON

New deaths with coronavirus per day, by number of days since 3 daily deaths first record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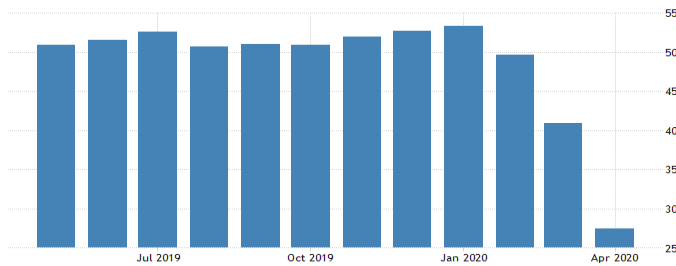
뉴욕타임즈 3월 27일자 1면

- 평균 30만명이던 신청자는 3월 둘째 주 330만명으로 10배 증가. 셋째와 넷째 주에는 650만명 이상 연속 증가.
- 현재 추세로 보면 연간 실업률 30%를 넘겨서 1929년 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스티글리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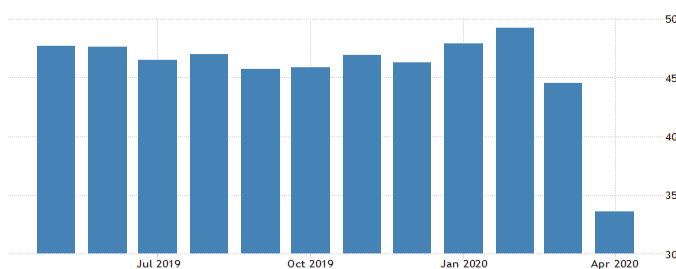
전월비 취업자 증감 (천명)



- 바이러스위기와 경제 위기를 연결하는 가장 직접적인 고리는 실업자와 집에서 쫓겨난 임차인
- 이들의 구직활동은 감염을 확산시킴. 이를 막기 위한 더 강한 봉쇄정책은 바이러스위기와 경제위기를 스파이럴 시킴
- "해고없는 지원", "강제퇴거 엄금"



<출처> <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composite-pmi>



<출처> <https://tradingeconomics.com/euro-area/manufacturing-pmi>

- 미국, 유로존 모두 종합 구매자 지수 급락 -> 세계 어디에도 상품을 판매할 곳이 없음
- 과거의 위기탈출 경로 : "원화가치 절하 -> 수출 증가 -> 투자 증가"가 작동할 수 없음.
- 어느 때보다도 각국 정부의 정책 협력이 절실하지만 바이러스 위기는 관세장벽보다 더 심각한 국경폐쇄를 초래 - 트럼프와 투키디데스 함정
- L자형 불황이 될 가능성이 높음

〈표〉 IMF 세계경제 전망(2020. 4.14., %)

	2019	2020	2021	2020-2019(%p)
인도	4.2	1.9	7.4	-2.4
중국	6.1	1.2	9.2	-4.9
한국	2.0	-1.2	3.4	-3.2
대만	2.7	-4.0	3.5	-6.7
일본	0.7	-5.2	3.0	-5.8
러시아	1.3	-5.5	3.5	-6.8
미국	2.3	-5.9	4.7	-8.2
캐나다	1.6	-6.2	4.2	-7.9
영국	1.4	-6.5	4.0	-7.9
호주	1.8	-6.7	6.1	-8.5
스웨덴	1.2	-6.8	5.2	-8.0
독일	0.6	-7.0	5.2	-7.5
프랑스	1.3	-7.2	4.5	-8.5
스페인	2.0	-8.0	4.3	-10.0
이탈리아	0.3	-9.1	4.8	-9.4

자료: www.imf.org 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IMF 세계경제전망 -3%,  
한국 -1.2% (Economist -1.8%)

- 조기방역에 성공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지만

- 세계경제가 L자형 침체를 겪는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내년 성장율이 더 낮을 것.

최필수, 2020, p2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2015년 현재가격 기준)

(계절조정계열 전년대비, %)

	2018 <sup>p</sup>				2019 <sup>p</sup>				2020 <sup>p</sup>	
	1/4	2/4	3/4	4/4	1/4	2/4	3/4	4/4	1/4	
국내총생산 (GDP)	1.0	0.6	0.5	0.9	-0.4	1.0	0.4	1.3	-1.4	(1.3)
민간소비	0.7	0.5	0.4	0.8	0.1	0.7	0.2	0.9	-6.4	(-4.7)
정부소비	1.9	0.6	1.6	2.8	0.4	2.2	1.4	2.5	0.9	(7.1)
건설투자	0.9	-2.5	-6.0	1.8	-0.8	1.4	-6.0	7.0	1.3	(3.4)
설비투자	4.3	-8.4	-4.0	3.2	-9.1	3.2	0.6	3.3	0.2	(7.6)
지식재산생산물투자	-0.7	0.0	1.2	0.3	1.3	-0.1	1.0	0.4	1.1	(2.3)
재고증감 <sup>1)</sup>	0.0	0.3	-0.8	0.6	0.3	0.1	-0.5	-0.7	0.6	(-0.4)
수출	3.5	0.7	4.0	-1.4	-3.2	2.0	4.6	0.5	-2.0	(4.9)
수입	4.3	-2.3	-1.1	1.6	-3.4	2.9	1.2	0.6	-4.1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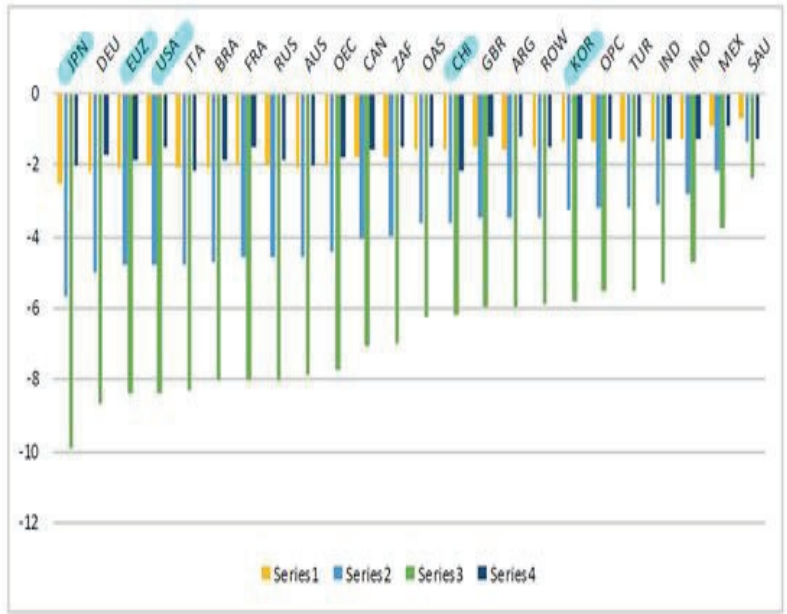
주: 1) 재고증감은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p) 2) ( ) 내는 원계열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한국은행 "2020년 1/4분기 실질국내총생산(잠정)"(4.23)

- 작년 동기 대비 1.3% 증가(전 대비 -1.4%): 소비 감소(-4.7%)를 수출과 투자가 상쇄

- 그러나 4월 수출 증가율 -20%대, 투자의 급감 예상

-> 2분기부터 제조업 본격 침체 시작. 내년 더 나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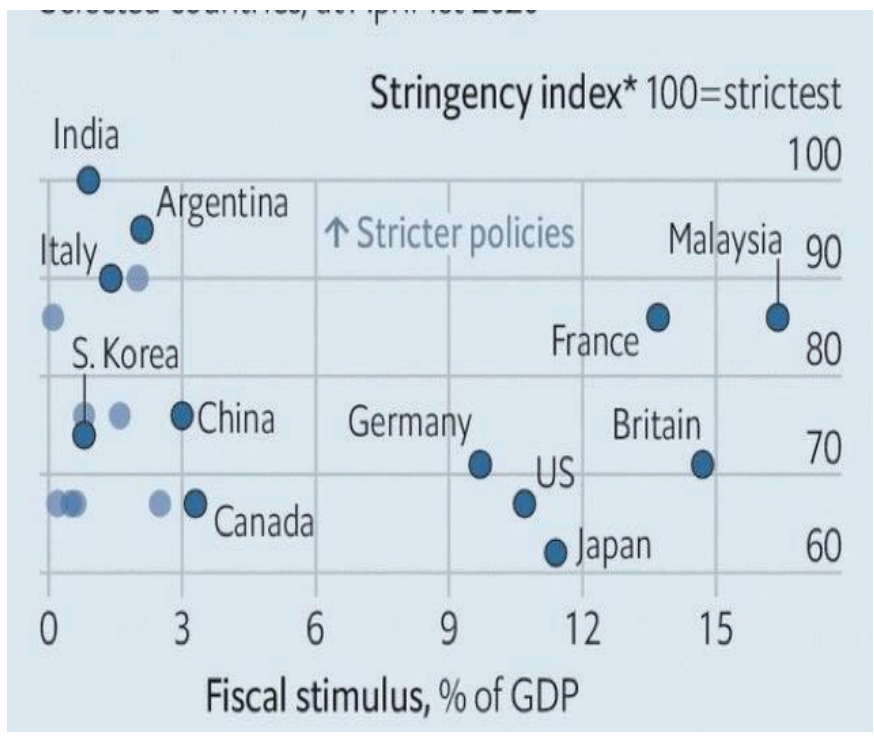


Source: Estimates by McKibbin and Fernando, S4-S7, Global Pandemic Scenarios

Baldwin & di Mario, 2020, p25. 에서 재인용

시나리오 별로 다양한 성장율이 나타나지만

각국이 받는 타격의 순서는 대체로 이 그래프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



Economist, 4.3일자

- 한국은 상대적으로 약한 방역으로 성공을 거뒀지만 재정 대응은 GDP의 1% 수준
- 3월말 3% 수준이었던 중국은 최근 5,900조 원(GDP의 30%)에 이르는 재정 투자 계획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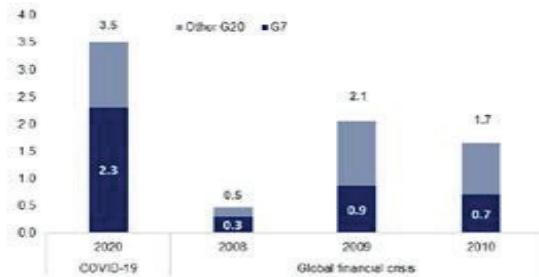


## 정부 경제대책의 성격 (1) – 재정 투입 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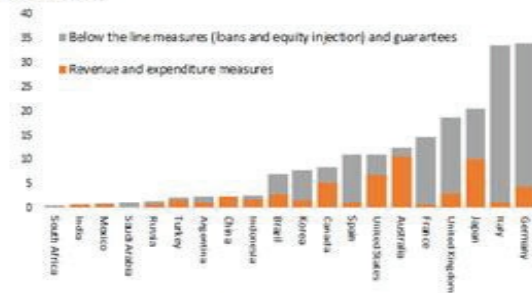
**Figure 1.1. G20 Fiscal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Percent of G20 GDP, left panel; percent of national GDP, right panel)**

Countries are providing sizable fiscal support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 1. Above-the-Line Measures



### 2. Above-the-Line and Below-the-Line Measures, and Guarante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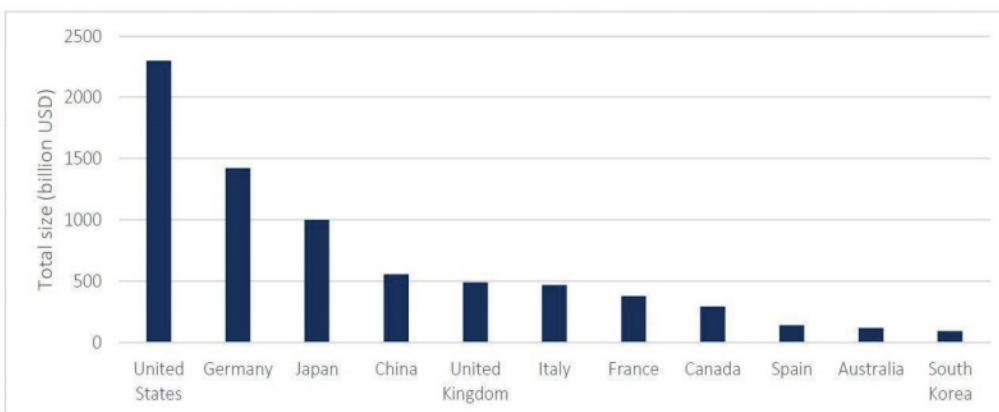


Sources: IMF 2009a; IMF 2009b; national authorities; and IMF staff estimates as of April 8, 2020.

Note: Panel 1 includes above-the-line spending and revenue measures only, weighted by GDP in PPP-adjusted current US dollars. Panel 2 adds below-the-line measures (loans, equity injections) and government guarantees to revenue and expenditure measures adopted in 2020. These are presented in the same panel for ease of reference but are not additive; see Box 1.1 and Special Feature Online Annex 1.1. The decomposition between loans and guarantees is based on available information as of April 8, 2020. G7 = Group of Seven; G20 = Group of Twenty; PPP = purchasing power parity.

## 정부 경제대책의 성격 (2) – 정책 규모 과소

**Figure 1 Announced fiscal stimulus package by coun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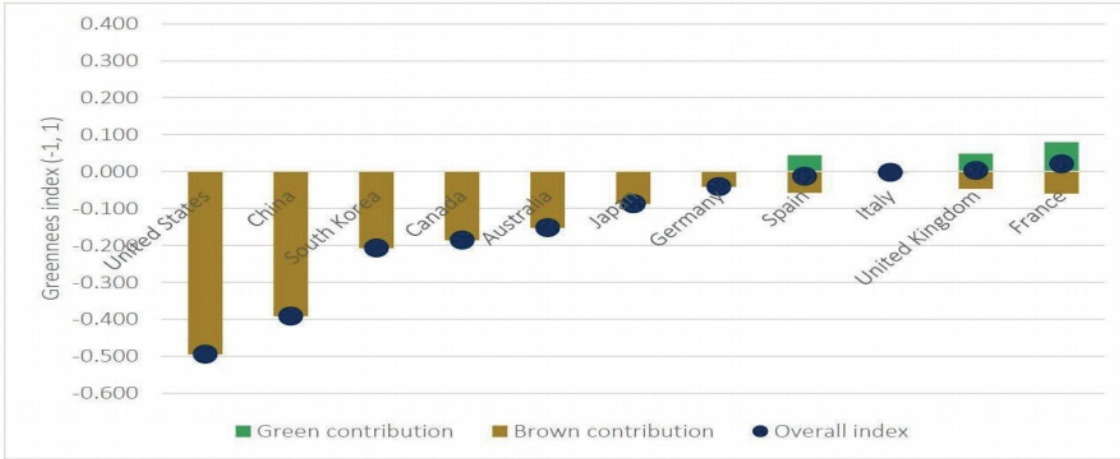


Source: Vivid Economics using IMF COVID response tracker data and Oxford Coronavirus Government response tracker.

Note: Updated on April 22

## 정부 경제대책의 성격 (3) - 그린뉴딜 과소

Figure 3 Green Stimulus Index



Source: Vivid Economics using IMF COVID response tracker data, Oxford Coronavirus Government response tracker, various National Statistics Offices, Climate Policy Tracker, OECD Environmental Stringency Index, Yale's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OECD Statistics.

Note: Updated on April 22

## 정부 경제대책의 성격 (4) - 디지털 뉴딜

### 3 추진 방향

- ◇ 2~3년 시계에서 국민체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를 과감히 속도감 있게 추진
  - \* 기존사업의 경우 당초 추진일정을 최대한 앞당겨서 시행
- 정부투자 + 민간투자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하여 '경제구조 고도화 + 일자리 창출'

### <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

1. 디지털 인프라 구축	데이터 수집·활용 기반구축	<input type="checkbox"/> 데이터 주기 인프라 강화 <input type="checkbox"/> 국민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5G 등 네트워크 고도화	<input type="checkbox"/> 5G 인프라 조기 구축 <input type="checkbox"/> 5G* 융복합 사업 촉진
	AI 인프라 확충 및 융합확산	<input type="checkbox"/> AI 데이터-인프라 확충 <input type="checkbox"/> 초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2. 비대면 산업 육성		<input type="checkbox"/>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input type="checkbox"/> 클라우드 및 사이버안전망 강화
3. SOC 디지털화		<input type="checkbox"/>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input type="checkbox"/>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
<b>사람 투자를 통한 디지털 선도인력 양성</b>		

정부- 여당 일각에서 나온 "그린뉴딜"과는 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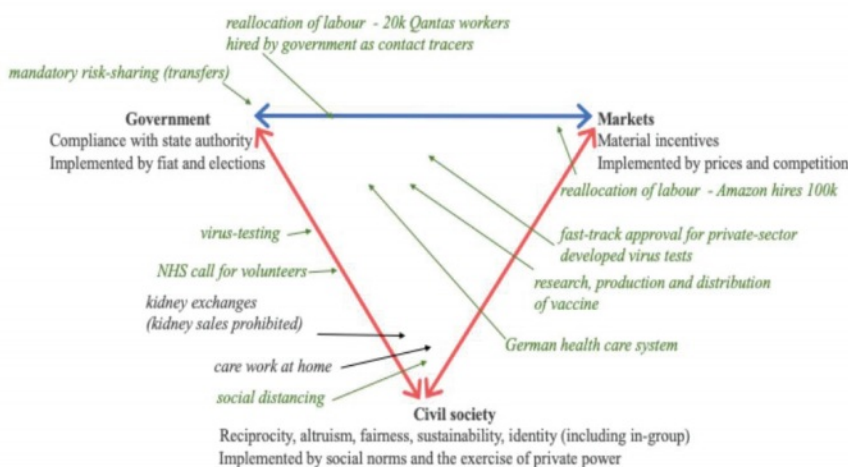
- 빅데이터-AI의 이름만 바꿨고, 여전히 플랫폼과 데이터의 민주주의엔 무관심
- 더 큰 문제는 원격의료로 대표되는 의료민영화
- "business as usual"

## 경제대책의 방향

- 바이러스위기와 경제위기의 연계 차단  
= 해고와 강제퇴거 금지
- 사람과 기업, 그리고 환경의 보존이 최고 정책 목표
- 공공 의료 자원의 대폭 확충 - 2차 감염 대비
- 부족한 투자를 메우는 " 녹색 인프라 투자"
- : 바이러스 위기 뿐 아니라 불평등, 기후위기 대응

## 경제대책의 방향 - 사회적 경제의 위치

Figure 2 An expanded space for policy and economic discourse



<출처> Bowles & Carlin, 2020,

- 사회적경제는 정부-시장-시민 사회 삼각구도에서 시민사회의 경제적 토대. 따라서 삼각형 아래 쪽의 의료, 돌봄 등에 할 일 존재.
- 위기의 성격 상 "실업극복 국민운동" 같은 사회운동 필요 - 사회적경제의 역할 지대
- "그린뉴딜"에서 지역별 재생에너지 믹스의 발굴 및 생산, 역내 노후 주택 에너지 효율성 향상은 사회적경제의 주요 대상

## 애프터 코로나?

- 임박한 기후위기와 국가의 무능 - 튜베리의 "business as usual" 비판
  - 글로벌라이제이션과 국제체제의 재편 - 바이러스 위기 공동대응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진원지를 둘러싼 미중의 갈등
  - 국가 역할의 증대와 포퓰리즘 - 공동체 민주주의의 보루로서의 사회적경제
  - 4차혁명과 생활의 변화 -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의 변화와 사회적경제의 중요성
- > "생태 전환 " 이 유일한 활로

토론(1)

**코로나 위기**

**사회적경제의 접근법과 역할**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 코로나 위기 사회적경제의 접근법과 역할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 정책기획위원장 강민수

### 1. 리스크에 대비한다.

미래를 다 예측할 수 없으나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다시 발생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됨  
이에 사회적경제는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코로나와 같은 사회, 경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는 2  
가지 주장을 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 사회보험 제도의 적극적 확장을 주장해야 함

사회적경제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국민고용보험제도와 같은 사회보험 제도의 적극적 확  
장을 주장해야 함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은 규모가 작아 코로나와 같은 사회경제위기에 취약함  
특히 디지털 플랫폼경제가 빠르게 확산 됨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등 특  
수고용노동자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음. 2019년 기준 국내 프리랜서 규모는 약 220만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며(1인 기업 포함), 해를 거듭하며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  
남. 이들 플랫폼 경제종사자는 사회적 보호나 권리에서 배제되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노출되  
어 있으며 협동조합에 속한 다양한 프리랜서 역시 같은 처지에 있음

덴마크의 모든 소득자는 8%의 노동시장세를 납부하고, 실업이나 질병으로 인해 일을 못하  
게 될 때 실업급여를 받고 있음

둘째, 공제를 결성해야 함

이번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가 고용유지를 위해 추진한 모금사업은 특별하고 긴급하게 일  
회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미래에 발생한 리스크에 체계적으로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공제조직(Mutuals, Cooperatives, Friendly Societies 등)들에 의해 수행되는 공제사업은  
조직 할 필요가 있음

(공제사업은 위험보장이라는 목적 하에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자본으로 하여 조합  
원의 사고 시에 공제금을 교부하여 돕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일하는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사회적경제 공제(질병, 사고에 대비)를 추진해야 함

### 2. 기회를 활용한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시장의 주도권은 사회적경제가 아니라 대자본에 있다고 판단함  
그럼 사회적경제는 어떤 전략으로 위기 이후의 새로운 기회에 대비해야 할까?

첫째, 연대와 협력을 통한 범위의 경제 실현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실질적인 사업적 연대와 사회적금융 구성에 나서야 함

예를들면 이종간협동조합연합회, 우선주 제도 등을 활용하거나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여 사  
람과 자본의 부족에 대비하여야 함

둘째, 정부정책을 적극 활용

정부는 코로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당분간 작은정부에서 큰정부로 이행할 것이 분명하다면 이에 맞는 사회적경제의 정책활용 전략이 있어야 함

예를들어 정부가 뉴딜일자리 55만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다면 정책을 활용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고민 할 필요가 있음

다만 뉴딜은 말그대로 새로운 계약(New Deal)을 의미하므로 이에 걸맞게 우리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가치(그린, 안전, 생태)를 합의하는 것이어야 함

### 3. 미래에 관한 두가지 시나리오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 놓았고 바뀌가고 있음

예를들어 우리는 지금 화상으로 회의하고 교육하고, 유명한 성악가와 가수들의 공연을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심지어 민주주의 제도가 탄생하고 성장했다는 유럽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니라는 생각도 하게 됨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이 과연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의구심이 있음

돌아보면 인류는 수많은 위기를 넘어왔으나 기계가 컨베이어 벨트로 컨베이어 벨트가 컴퓨터로 컴퓨터가 인공지능으로 바뀌었을 뿐 그것을 움직이는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는 없었음  
어쩌면 인류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코로나19를 수많은 경미한 사고들 중 하나로 받아들일게 될지도 모름

하여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사회는 두가지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지게 되었음

하여 사회변화를 위한 근본적 질문을 하고 변화를 함께 꿈꾸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저절로 오지 않을 것임



토론(2)

# K 재난구호 형성과 사회적경제의 역할

라정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재난안전연구소 부소장)





12회 사회적경제 정책포럼 토론:

## K-재난구호 형성과 사회적경제의 역할

전국재해구호협회 재난안전연구소 부소장 라 정 일

2

혼자서 다 처리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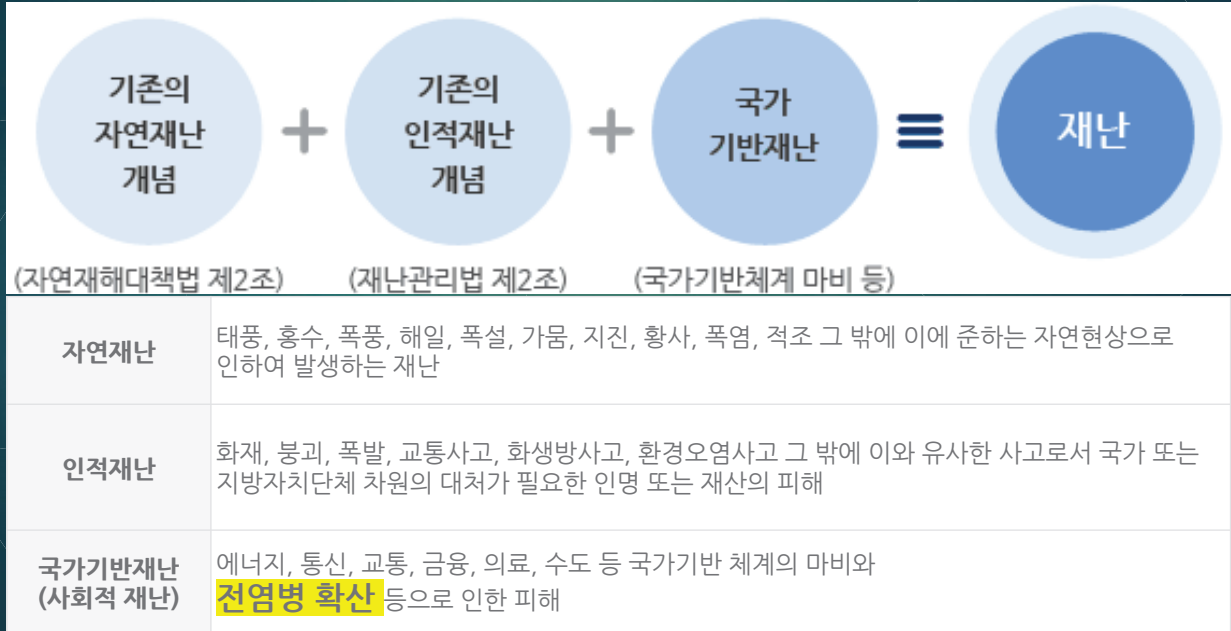
# 재난

## 역량 초과!!

연대와 협력의 지원 체계 구축

# 재난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자연재난, 인적재난, 국가기반재난으로 분류

3



## 재난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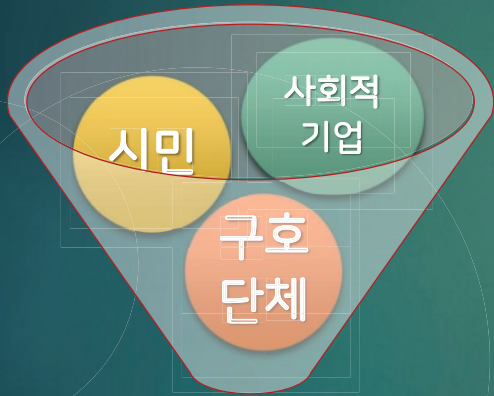
4

- ▶ 실질적인 위험이 크더라도 재난을 체감하지 못하거나 방심
- ▶ 본인과 가족과의 직접적인 재난피해 외에는 무관심
- ▶ 시간과 기술·산업발전에 따라 발생 빈도나 피해규모가 다름
- ▶ 인간의 면밀한 노력이나 철저한 관리에 의해 상당부분 근절시킬 수 있음
- ▶ 발생과정은 돌발적이며 강한 충격을 지니고 있으나 같은 유형의 재난피해라도 형태나 규모, 영향범위가 다르다.
- ▶ 재난발생 가능성과 상황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
- ▶ 고의나 과실이든 타인에게 끼친 손해는 배상의 책임이 있음

그러나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재난과는 다른 특성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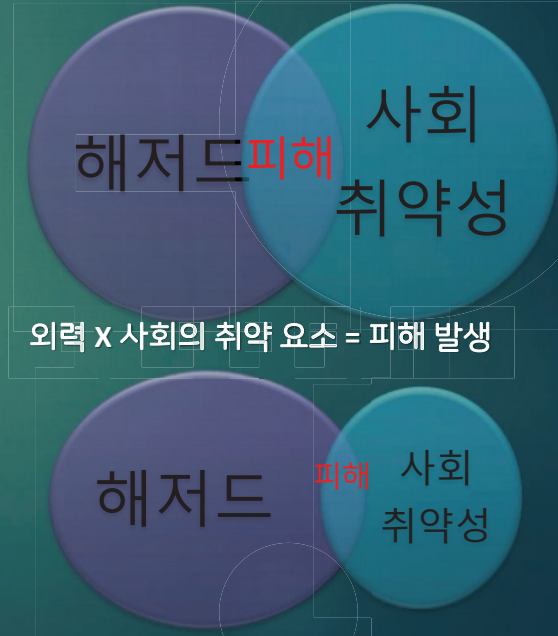
-> 기존 재난관리 방안 어려움과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

# 시민, 사회적기업, 구호단체의 협력체계를 통한 지역 레질리언스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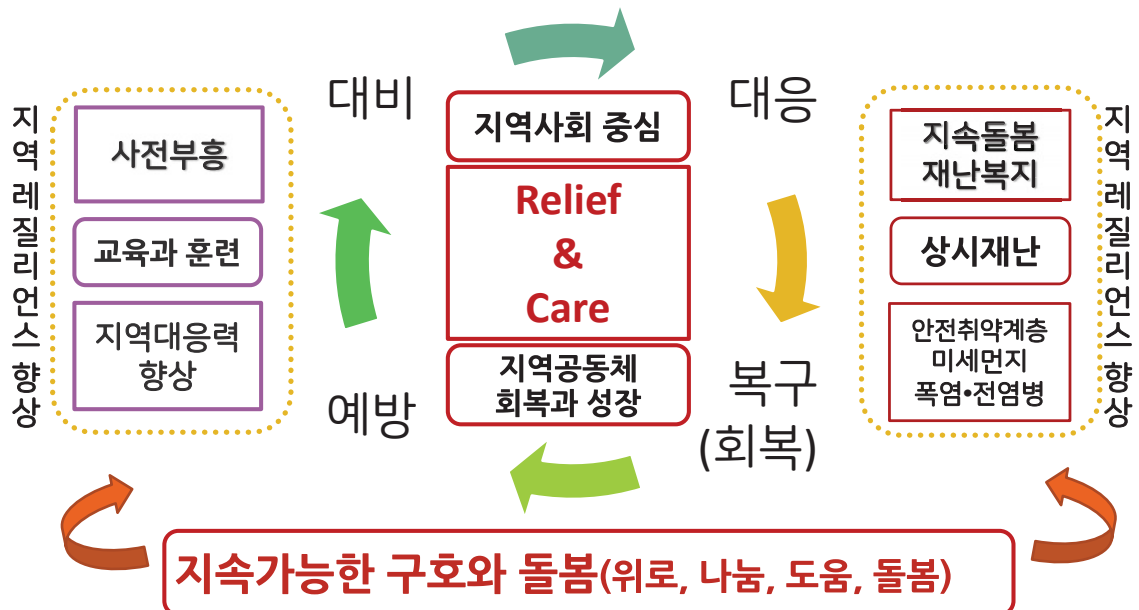


협력적 계획을 통한 지역 레질리언스 향상

재난 피해 요인



## 지역사회 회복·성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구호와 돌봄 Sustainable Relief & Care for Recovery & Re-growth in Local Community



## 기업 후원이 함께하는 민간 재난구호 활동

7

- ▶ 코로나19: 삼성 300억, 현대차그룹 · 포스코 50억 등
- ▶ 강원도 산불: 삼성 20억, 현대차그룹 · SK 10억 등
- ▶ 재난 발생 시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 사회공헌 활동으로 상시화
- ▶ 사회공헌활동 중 10% 정도가 재난구호사업 등에 사용 증이나 빈번한 재해 발생으로 수요 증가



## K-재난구호와 사회적경제

8

- ▶ 국제 사회로부터 호평을 받은 'K-방역'은 세계 방역 모델 표준이 되고 있음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회재난으로는 역대 최대인 약 2,520억 원의 국민 성금 모집
- ▶ 성금은 긴급구호와 제도권 사각지대의 재난취약계층 지원 등에 사용되어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와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 ▶ 대표적 구호모금 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3개 기관 제공 마스크만 약 2,731만 장(4월중순)
- ▶ 희망브리지: 현재까지 마스크, 손소독제,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생필품 키트, 자가격리자 식료품 키트, 의료진 응원 키트 등 **구호 물품 약 460만여 점과 안전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상품권 193억 원 지원**
- ▶ 특히 대구경북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아동센터·척수장애인협회와 골목식당을 연계한 도시락 지원과 지역자율방재단과 함께한 다중이용시설 방역작업, 대구경북 봉제 기업들과 연계한 경북형 면마스크 지원 등은 **고용 유지 및 창출 등 지역 공동체 상생협력 모델로도 발전 가능**

# 지역아동센터·척수장애인과 골목식당 연계

9

-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사회 중심의 고용 유지 및 창출 등



<https://www.youtube.com/watch?v=W4fyzVRXbkg>



<http://www.hani.co.kr/arti/PRINT/932916.html>



[http://www.news1.com/view/?id=NISX20200422\\_0001002699&cid=10899&pid=10800](http://www.news1.com/view/?id=NISX20200422_0001002699&cid=10899&pid=10800)



# 코로나19 희망브리지 오늘의 브리핑

10

- ▶ <https://www.youtube.com/watch?v=O2apTpZDgc0>
- ▶ 투명한 모금 현황 및 재협 구호활동 국민 공개
- ▶ 약 528.8만 점, 723.5억 집행, 5/11일 현재



## 코로나19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구호물품 대응

문제점 : 지자체에 보낸 구호물품 사후 처리 보고 등이 없음

1. 공공기관 처리 대응 능력의 한계
2. 평소와 다른 자원봉사자 투입 어려움
3. 구호물품의 편중, 누락, 중복 가능성 높음



## 코로나19 재난구호를 위한 사회적기업의 역할

###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와 모니터링 필요

- 사회적기업은 지역 사회에서 밀접하게 활동
- 안전취약계층 대상 구호물품 구매, 배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니즈 반영 및 애로 사항 등의 모니터링 가능





# K-재난구호 형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연대와 협력 프레임워크

## 상호 연대협력 체계 구축

기관 상호 비전 공유를  
통한 협력적 계획 작성  
내재적 및 외적인  
동기부여  
(인정과 독려)

**공유와 소통의 장 제공 및  
참가형 방법론 지원**

## K-재난구호 형성을 위한 협력적 계획과 실천

먼저 가능한 것부터!!

**PDCA사이클의  
시스템화 및 내재화**

시민·사회적기업·  
구호모금기관 간의 **협동적  
연계 및 지역 리더 양성**

## 활동 검증 및 평가 시스템 구축

지속적인 모니터링  
(외부단체 및 행정 참여,  
의견교환, 의지표명)

사회적경제의,  
사회적경제에 의한,  
사회적경제를 위한  
**정기적인 발표 및 보고회  
(행정, 연구기관, 언론  
참여, 관심 및 독려)**



토론(3)

# 대구 사회적경제의 코로나19 대응

**강현구**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 준비위원장)



# 대구 사회적경제의 코로나19 대응

-코로나위기, 사회적경제의 접근법과 역할, 토론문 / 대구사회적가치연대(준) 위원장 강현구

## 1. 위기상황 속에서 희망의 꽃을 피워낸 대구 사회적경제

- 2월 18일, 대구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대구는 재난 영화에서나 보던 상황이 벌어졌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코로나19 확진자들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검진자들, 그리고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내려온 수많은 의료봉사자들이 있었다.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을 감수하고,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모르는 대구를 응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내려온 사람들이었다. 대구는 혼란스러운 상황속에서 의료봉사자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 대구에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이 있다. 바로 ‘(주)공감씨즈’라는 곳이다. 이 기업은 코로나19의 의료지원을 위해 한걸음에 달려온 의료봉사자들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3곳 중 2곳을 무상으로 내어놓았다. 뿐만 아니라 의료진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탁, 식사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 대구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이 (주)공감씨즈의 선행에 감사를 표하며 이들과 의료진들을 응원하기 위해 많은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 (주)공감씨즈처럼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있는 곳들이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기업들이다. 모임이 취소되고, 행사들이 연기되면서 문화예술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3월 18일에 발표한 ‘코로나19사태가 예술계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발표에 따르면 금년 1~4월 취소·연기된 행사는 2,500여건에 규모로는 약600억원에 이르고, 예술인 10명중에 9명은 전년대비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는 문화예술관련 기업은 대구 전체 사회적기업 중 약 19.8퍼센트를 차지하며 제조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업종이다. (『2019년 대구 사회적기업 실태조사』(사)커뮤니티와경제)
- 문화예술 관련 기업들은 나라에 큰 위기에 직면하거나 전국민이 슬퍼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은 언제나 인간의 희노애락과 함께 했다. 이번 코로나19가 대구 시민들의 심신을 힘들게 할 때 대구의 문화예술 기업들은 힘을 모았다.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만들었고, 희망이 가득한 가사와 멜로디로 대구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 주었다. 이밖에도 예비사회적기업인 (주)희망정거장은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공연을 무관중 콘서트로 열어 온라인 생중계를 하였다.



<사진> 대구·경북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들이 제작한 ‘힘을내요! 그대’ 영상

- 코로나19사태를 극복하고 희망을 만들어내는 일에는 개별기업들의 역할만 있지 않았다. 대구사회적경제 가치연대(준)과 (사)대구사회적기업협의회는 지난 2월 28일부터 약 한달동안 코로나19극복 기금 마련 모금을 통해 대구 사회적경제인들의 소중한 성금 43,560,000원을 모았다. 이 성금은 코로나19의 피해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청소년들과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을 위해 전달 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사)대구마을기업연합회는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을 위해 마스크를 무료로 나누어주었고, (사)동구사회적경제협의회, 달서구사회적경제협의회는 회원사들의 후원물품과 기금을 모아 의료진들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전달하였다.



<사진> (사)대구사회적기업협의회 기부 물품 전달(좌),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준) 성금 전달식(우)

대구 코로나19사태 대구 사회적경제기업 상생 활동 사례	
단체 / 개인	활동 내용
(주)공감씨즈	의료진에게 무료숙소(게스트하우스 2채) 및 기본생활지원 제공
광명협동조합	버섯현미누룽지(50만원 상당), 농공상연합회 전달
농업회사법인(주) 나무를심은사람	매주 목요일, 반월당네거리 간식 50인분씩 전달 (샌드위치, 음료, 과일)
다울건설협동조합	대구역 인근 무료급식 중단된 이후, 도시락과 마스크 지원
달서구사회적경제협의회	3월 9일, 달서구청에 300만원 기금 전달(협의회비+특별회비) - 특별회비 납부회사 - (주)운동명가조아집, 대구사회서비스협동조합, (주)나눔크로바, 달서구마을기업공동, (사)청소년교육 우리세상, (주)햇빛나들이, 공연중심어울림협동조합, (주)한국파릇하우스, (주)에코스타트
동구사회적경제문화센터	손소독제 500개 HIV감염인 및 동구 지역아동센터 기부
동내책방협동조합	대구의료원 의료진에게 위생장갑, 세면도구 등 생필품과 음료지원
(사)대구동구사회적경제협의회	생활치료센터 입소환자 및 의료진 응원 플랜카드 3기 게시
(사)대구마을기업연합회	노숙인,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을 위해 도시락과 마스크 나눔 진행
(사)대구사회적기업협의회	1. 농업회사법인(주)나무를심은사람-수제잼500병, 식빵1,000봉지 물품후원 (현금추산1,549여만원/지역푸드뱅크5개소 각100세트 전달) 2. (주)ODS, 마을의정원협동조합, (주)아름다이-양말 및 티셔츠 1,000켤레 물품후원
동구사회적경제협의회, 보기공방협동조합,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준)	1. 안심종합복지관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분들께 천마스크 100개전달 2.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 HIV 감염인 분들께 천마스크 50개, KF94 마스크 50개 전달 3. LH10단지 행복주택 70세 이상 고령자분들께, KF94 마스크 100개전달 4. 나무를심은사람들 장애인등 근로자분들께 KF 94 마스크 150개, 천마스크 150개 전달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시민대상 매주 수요일 100잔 무료 음료 나눔
마을의정원협동조합, (주)아름다이, (주)ODS	의료진을 위해 남성용 양말 제작 기부
반야월연근사랑협동조합	선별검사소 의료진과 봉사자를 위해 도시락 제공
보기공방협동조합	천연염색 마스크 총 900장 기부 (200장 동구청 기부/200장 다울건설협동조합 기부/ 300장 (사)대구동구사회적경제협의회 기부/ 200장 효목1동자치센터 기부)
사회적협동조합동행,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빅핸즈, 지역문화공동체반반, (주)서구웰푸드, 강북희망협동조합, 무한상사사회적협동조합	대구가톨릭대 폐쇄 병동 의료진과 환자들께 도시락, 머핀, 커피 등 일주일간 전달
사회적협동조합행복림, 동내책방00협동조합, (사)성서공동체에프엠, 마을문화센터숨씨협동조합, 우렁이밥상협동조합	꾸러미상품(생필품,반찬,소독제 등) 성서 취약계층 전달
서구맛빵협동조합	빵 640개 전달 (서구청재난본부-100개, 119집합소-300개, 경북대 생활치료센터-120개, 교육청 생활치료센터-120개)
(사)성서공동체에프엠	특별 생방송 통해 천마스크 기증받아 이주노동자센터로 지원
(주)새벽수라상	3월 12일부터 월~금, 대구의료원에 30인분 도시락 지원
생명살림연대협동조합	빵 100개 상인동 나눔텃터 나눔 (성금) 1,209,000원 - 적십자 전달
수성구사회적경제협의회	(물품) 손세정제, 드립백커피 - 성서이주노동자센터 전달 (물품) 수제비스켓 55개, 라면 1박스 -경산미혼모센터 사론의 집 전달
시지건강먹거리	취약계층 한 부모가정 도시락 나눔
신대구사회적협동조합	240만원상당 양말을 대한적십자 대구지사 후원

아가쓰잉협동조합 (주)에인다	지역 복지관에 재사용 가능한 마스크 100개 기부 빵 300개 음료수 10박스 반월당, 상인동 쪽방 노숙자 전달
우렁이밥상협동조합 (주)ODS	매주 수요일, 도시락 만들어 반월당네거리 무료급식 활동 의료진을 위해 여성용 양말 1,000켤레 기부
(주)엘컴즈	사람과사람사회적협동조합-음료 및 손소독제 전달, 덕수복지재단-손세정제및 티슈 100개 전달, 북부 경찰서-손세정제 및 음료, 소독용 물티슈 450개 전달 YMCA-손소독제 300개 전달 중구청 기획실,관광과-손소독제 100개 전달 동산의료원-김치캔500박스 운송대행
(사)인디053	힘내라 대구-경북 온라인 응원 활동 진행
(주)청소하는마을	취약지역(복지관,어린이집) 무료 방역 및 대구사회적경제기업 무료 방역, 대구시, 수성구청 손소독제 각 50만원상당 기부
커피킹덤협동조합 (주)콩지팔지	하루 커피 100명 분 4월말까지 무료나눔 진행예정(약 325만원 상당) 동산병원 의료진에게 영양떡 200개와 더치커피 지원
토브커피에이전시협동조합	드립백, 더치커피 1,200개 동산병원의 전달
평광왕건사과마을 (사)푸른차 연구회	사과즙 100박스 동구청 전달 / 50박스 동구사경협의회 기부 무료급식 도시락 제작 참여 녹차 제공
협동조합 농부장터	칠곡경북대병원 의료진을 위해 유기농 포도즙 50박스 전달
협동조합달콤한밥상	취약계층 도시락 전달
(주)행복한수라상, (주)운동명가조아짐, (주)아이나리	3월 10일, 대구의료원에 과즙음료, 더치커피, 백설기 350인분 전달
(주)희망정거장	'코로나19 극복' 무관객 희망콘서트 유튜브방송

-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지역이 된 대구는 어느 누구도 찾기 두려운 지역이 되었다. 대구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괜한 피해를 줄까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자제하였고, 자발적 거리두기를 실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지역에서 갖는 대구의 이미지는 좋지 않았다. 코로나19로 대구 시민들이 힘든 것은 감염의 우려보다 대구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시선들과 편견들은 소수의 의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대구는 또 한번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다.
- 대구 사회적경제는 매년 광주와 교류를 통해 우호를 다지고 있다. 광주에서 일이 있으면 대구에서 달려가고, 대구에서 일이 있으면 광주에서 달려 와주었다. 광주사회적기업협의회는 대구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김치1톤을 포함한 먹거리와 각종 위생용품을 보내주었다. 그냥 보내준 것이 아니라 직접 트럭에 물품을 싣고 광주에서 직접 전달하러 와주었다. 대구에 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이나 한걸음에 달려와주었고, 대구에 감동을 전해주었다. 광주 외에도 제주, 전남 등 전국 각지에서 대구를 위한 물품기부가 이어졌다. 사회적경제가 말하는 연대와 협동의 정신이 무엇인지 이처럼 잘 설명해주는 사례가 또 있을까?





<사진> 광주사회적기업협의회 물품 기부 전달식

NO	대구 코로나19사태 전국 사회적경제조직 도움 물자 리스트		
	단체/개인	수령 물품	비고
1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경기지부	마스크 300장	
2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광주지부	김치 1톤	
		과자	
		칫솔(아동) 200개	
3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전남지부	칫솔(아동) 1,800개	
		유기농영양죽 500개	
		두부과자 20박스	
		마스크 1,000장	
4	경남사회적경제협의회	살균소독제(10리터)50통	
5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서울지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마스크 500장	
6	다울사회적협동조합(충남) (주)이투비플러스	KF94마스크 5,000장	
7	(주)두손식품(인천)	손소독제 2박스 (1박스80개)	
8	(주)쌍지뜰(전남마을기업)	돼지고기양념육 1,000개	
9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쌍지뜰누룽지 9박스 (1박스40개)	
		희망꾸러미박스 200개 도시락 지원 2000개	

## 2. 코로나19 대응 대구 사회적경제의 주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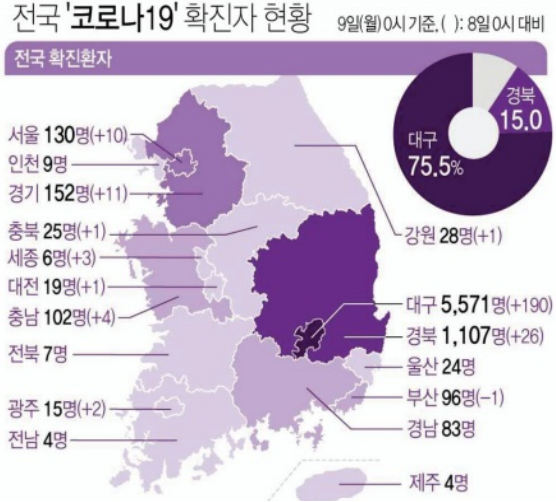
- 2월 17일 : 대구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 발생
- 2월 말 : (주)공감씨즈를 시작으로 대구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시작
- 3월 3일 ~ 8일 : 대구 사회적경제 코로나19 피해 실태조사 진행
- 3월 중순 ~ 3월 말 : 코로나19 피해 지원 물품 취합 및 취약계층에게 전달
- 3월 13일 ~ 3월 26일 : 대구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대구 사회적경제 연대 기부' 모금(총 28개 기업 및 개인 10명, 43,560,000원 모금)
- 3월 31일 : '대구 사회적경제 연대 기부' 모금액 전달식, 대구 청소년쉼터협회, 대구이주민선교센터에 기부금 전달
- 4월 1일 ~ 4월 20일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와디즈 펀딩 프로젝트 진행(총 82명 펀딩, 총 10,666,000원 펀딩 성공)
- 4월 10일 : 대구 사회적경제 코로나19 대책 TF 회의 발족(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준)내 TF+ 대구시, 중간지원조직 참여)
- 4월 17일 : 대구 사회적경제 코로나19 대책 TF 2차 회의 개최
- 4월 24일 ~ 4월 29일 : 코로나19 대응 업종별 간담회 개최
- 5월 7일 : 대구 사회적경제 코로나19 대책 TF 3차 회의 개최

### 3. 2020년 코로나19 대구사회적경제조직 피해 실태조사 결과

#### 01 지역사회 현황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최대 피해 지역, 대구**

- 2월 18일, 대구 첫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2월 27일을 기점으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고, 현재 5,378명이 확진을 받음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75.4%를 차지함.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로 인해 대구 시민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음.
- 대구시,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기업을 비롯하여 대구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지역사회 내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이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도 증가하면서 지역사회 전체의 피해로 확산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 심화됨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강조**

- 코로나19 대응에 행정력과 의료·보건시스템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약화되고 있음. 특히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노숙인, 쪽방 거주민, 장애인, 독거노인에 대한 의료·보건체계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위 집단들은 사회적·신체적 취약계층으로 코로나19 감염에 쉽게 노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여 사회적 고립이 심각해질 경우 2차·3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지역사회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사회적경제**

- 사회적경제는 호혜와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음. 이번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희망의 메시지 전달하고자 대구 사회적경제가 앞장서고 있음.

(주)공감씨즈	(주)희망정거장	동구사회적경제협의회
<p>“대구 도우러 오신 의료진, 잠이라도 편하게...” 숙박시설 통째로 내놓은 사장님</p> <p>27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차재만산센터 선별진료소에서 간호사 박은숙 씨(왼쪽)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하고 있다. 지도=영한준 기자 nmg@donga.com</p> <p>“얼마 전 대구에 온 공중보건역들이 숙박할 곳을 구하느라 고생했다는 말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렸습니다. 대구를 도우러 온 분들이 최소한 눈치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뭐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p>	<p>대구사회적기업 희망정거장, 무관중 콘서트</p> <p>27일 저녁 20:00~22:00 오송 아트홀</p> <p>‘힘내라 대구·경북... 대명동 콘서트장 막을서</p> <p>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콘서트장 벽면에서 코믹스 밴드와 함께 열릴 무관중 콘서트 소 및 협치, 희망정거장 제공</p>	<p>대구 동구에는 사회적기업(동행, 빅박스, 반반)들은 26일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본사 앞에서 의료진 돌봄을 위한 도시락, 커피, 마면을 전달했다.</p> <p>관할구 대구사회적기업협의회장은 “사회적경제가 지역 사회와 함께 하겠다는 의지에서 연대하고 있다. 가장 고생하는 분들이 의료진들이고, 의료진에서 잘 돌보는 분들이니까 일주일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며 “오늘 돌리는 도시락 대구가톨릭회가 대구약 노숙인들을 위해 도시락을 지원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고 말했다.</p>
타지역 의료봉사자 숙박지원	희망메시지 전달을 위한 무관중 공연	환자 및 의료진 구호 물품 기부

## 02 대구 사회적경제 코로나19 피해 실태조사 개요

### • 조사 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경제기업의 피해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긴급한 현황 파악**이 필요함
- 사회적경제기업의 피해와 요청에 맞는 **지원정책**을 모색하고, 효과적인 실행 방법을 수립하고자 함

### • 조사 목적

-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에 앞장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피해는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
-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과, 대구 부문-지역별 협의회<sup>1)</sup>등과 대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내 모든 주체들이 동참하는 ‘거버넌스형 위기관리’ 형태로 실태조사를 진행

### • 조사 방법

- 기간 : 2020년 3월 3일(화) ~ 3월 8일(금) \*코로나19 대구광역시 확산 시점인 2월 마지막 주 이후 긴급 대응 시작
- 대상 : 2020년 현재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총 800여개 (중복포함)
  - 배포 : (예비)사회적기업 160여개, 마을기업 90여개, 협동조합 510여개, 자활기업 40여개
  - 회신 : (예비)사회적기업 97개, 마을기업 58개, 협동조합 91개, 자활기업 14개<sup>2)</sup>
- 형태 : **설문지 배포 및 회신**을 통한 응답에 따른 데이터화를 통해 통계자료 산출. 조직형태 및 업종별로 나타나는 응답 결과의 특성에 따라 **중요 지표**를 설정하고 합계와 평균을 기반으로 결과를 제시함

### • 조사 내용

- 일반현황 : 기업명, 소재지, 법인형태, 조직유형, 주요 업종
- 피해현황
  - 경영조치 **내용** (휴업, 휴직, 휴가, 재택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
  - 경영조치 **시작시점**
  - **피해규모** (매출액, 휴직/휴가조치, 임금체불, 납품/용역 계약취소) \*‘2월’ 발생 / ‘3월’ 예상 구분
  - **지원정책** 우선순위 (공공구매, 안정자금, 고용유지지원금, 지자체 고용대책, 임대료 등)
  - **긴급자금사용** 우선순위 (인건비, 제세공과금, 원재료 수급, 제품개발 등)
- 기타사항 (서술 문항)
  - 개별 기업의 **특징적인 피해**
  - 정부, 지자체,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 **건의사항**
  -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미담사례**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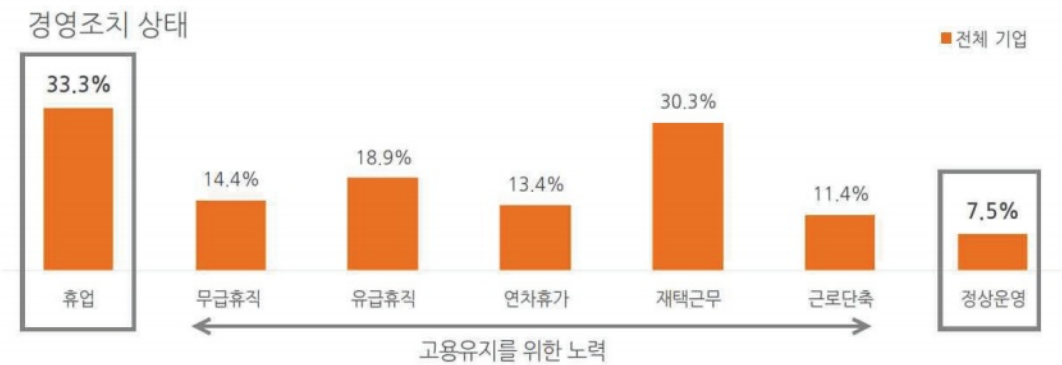
1) 동구사회적경제협의회, 서구사회적경제협의회, 남구사회적경제협의회, 북구사회적경제협의회, 중구사회적경제협의회, 수성구사회적경제협의회, 달서구사회적경제협의회, 달성군사회적경제협의회 (사)대구광역시사회적기업협의회, (사)대구마을기업연합회, 대구사회적협동조합협의회, 대구광역자활기업협회, 대구·경북소상공인협동조합협업단협의회,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자활센터, 대구사회적경제연구자네트워크, 사회적경제 활성화대구네트워크, 무한상사사회적협동조합

2) 중복수치 제외 시 총 203개 수령 : (예비)사회적기업 97개, 마을기업 55개, 자활기업 12개, 협동조합 39개

### 03 대구 사회적경제 코로나19 피해 실태조사 결과

#### • 경영조치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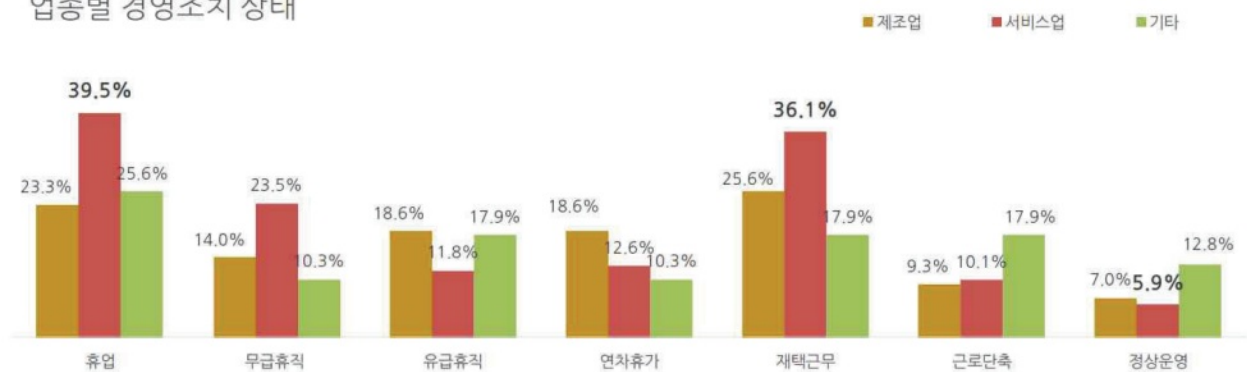
- 전체 응답 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휴업 상태가 33.6%가 가장 많으며, 정상운영<sup>3)</sup>은 7.5%에 불과함. 코로나 19로 인해 기업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나 사회적경제기업은 재택근무(30.3%)를 포함해 무급휴직, 유급휴직, 연차휴가,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음



#### • 업종별<sup>4)</sup> 경영조치 상태

- 위 경영조치 상태를 업종별로 구분하면, 서비스 업종의 특성상 타 업종인 제조업과 기타업종과 비교해 휴업 조치(39.5%)와 재택근무(36.1%)를 가장 많이 실행하였으며, 정상운영(5.9%)로 가장 낮은 상황임
- 기타 업종은 타 업종에 비해 근로시간 단축(17.9%)과 정상운영(12.8%)이 높은 상태로 나타남

업종별 경영조치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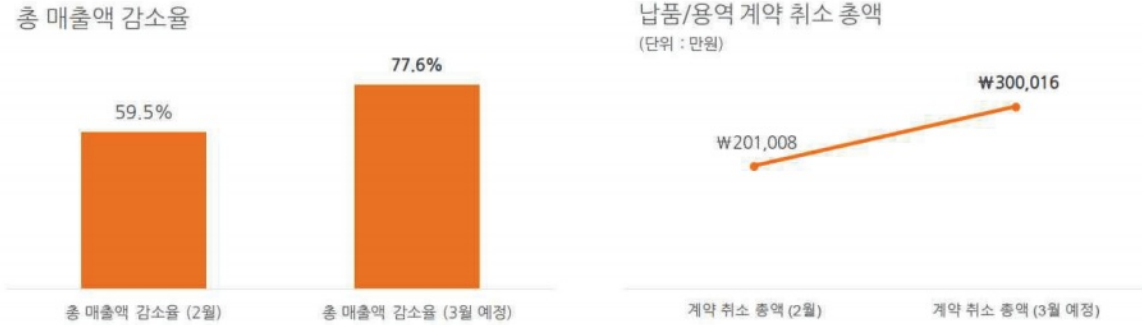


3) 경영조치상태 중복응답 문항(휴업, 무급휴직, 유급휴직, 연차휴가, 재택근무 기타) 중 기타에서 전체 혹은 일부 정상운영(이상없음 포함)을 기록한 기업 : (주)커스프, (주)한국파룻하우스, 콰터드림랩(본사), 엘리블하우스(3월), (주)남영이엔아이, (주)정주하우징, (주)지웍스, 나눔누리협동조합, 우렁이밥상협동조합, 청명원협동조합, 희망사회진흥원, 협동조합소이랩, 시지건강먹거리협동조합, 아가쓰이협동조합 등

4)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 구분 : 제조업, 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출판, 영상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과 기타(도매 및 소매,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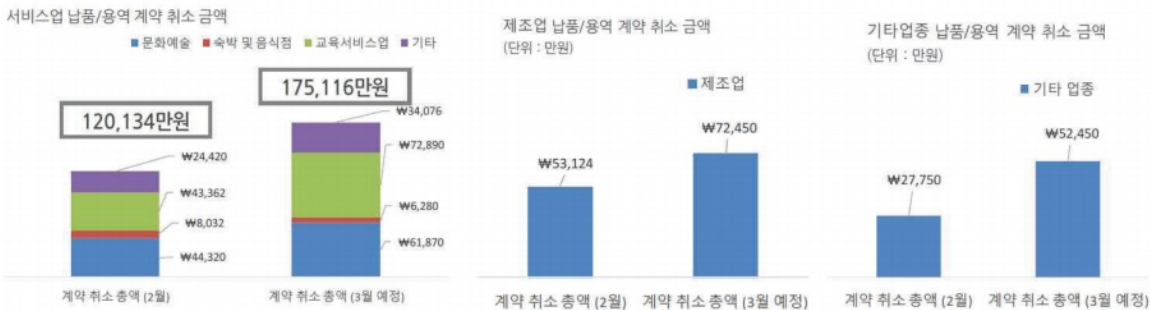
• **총 매출액 감소율 & 납품/용역 계약 취소 금액**

- 전체 기업의 총 매출액 감소율을 평균은 18·19년 대비 **2월 59.5%**, **3월까지** 피해가 지속되면 **77.6%**로 예상, 현 상태가 지속되면 총 매출액 감소의 비중이 높아서 사업 운영에 대한 자금 조달이 **매우 어려워질 것임**
- 전체 기업의 납품/용역 계약 취소 총액은 2월 **201,008만원**이며, 3월까지 지속되면 **300,016만원**으로 10억 원 이상 상승하여 **향후 1년 간 기업의 운영에 큰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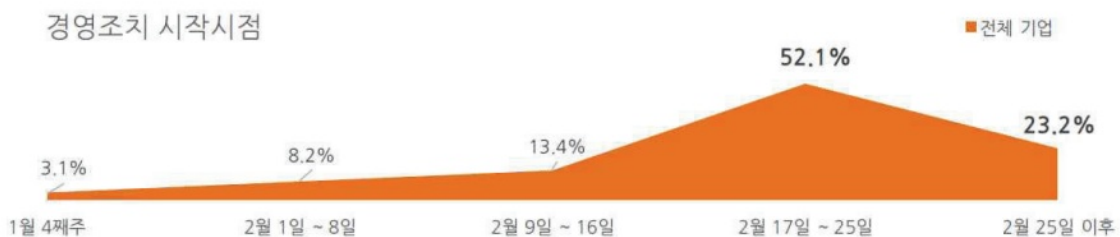
• **업종별 납품/용역 계약 취소금액**

- 납품/용역 계약 취소 총액은 2월과 3월 모두에는 서비스업이 각 120,134만원과 175,116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서비스업종 내 주요 업종을 구분하여 보면 **교육서비스업(72,890만원)**과 **문화예술(61,870만원)** 순임
- 제조업 및 기타 업종은 모두 2월 계약 취소 금액에 비해 3월 중 2억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경영조치 시작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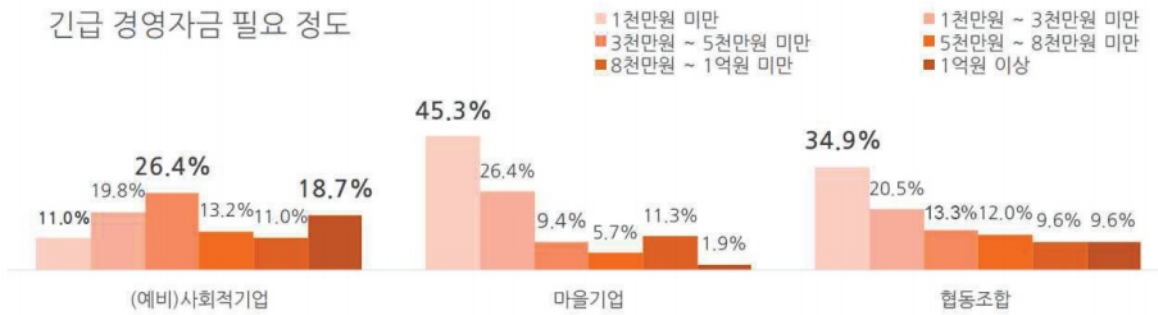
- 코로나 19 경영조치 시작시점은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시점인 **2월 17일 ~ 25일**이 **52.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월 25일 이후**가 **23.2%**임. 이런 상황이 3월 중순 경까지 이르러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2월 중의 급격한 매출액 감소를 회복하지 못해 **기업의 경영상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됨**



• 긴급 경영자금(금융대출) 필요 정도

- 긴급 경영자금 필요에 응답한 기업은 96%(203개사 중 194개사)로 설문에 참여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긴급경영자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 응답 기업의 비중으로 보면 1천만원 미만이 26.6%, 다음으로 1천만원 ~ 3천만원 미만이 20.7%임. 금액이 높아질수록 전체 기업의 필요 정도는 낮아짐. 그러나 이를 조직형태별로 구분하면 (예비)사회적기업은 3천만원 ~ 5천만원 미만이 26.4%로 가장 높으며, 1억 원 이상을 희망하는 기업도 17개사<sup>5)</sup>로 매우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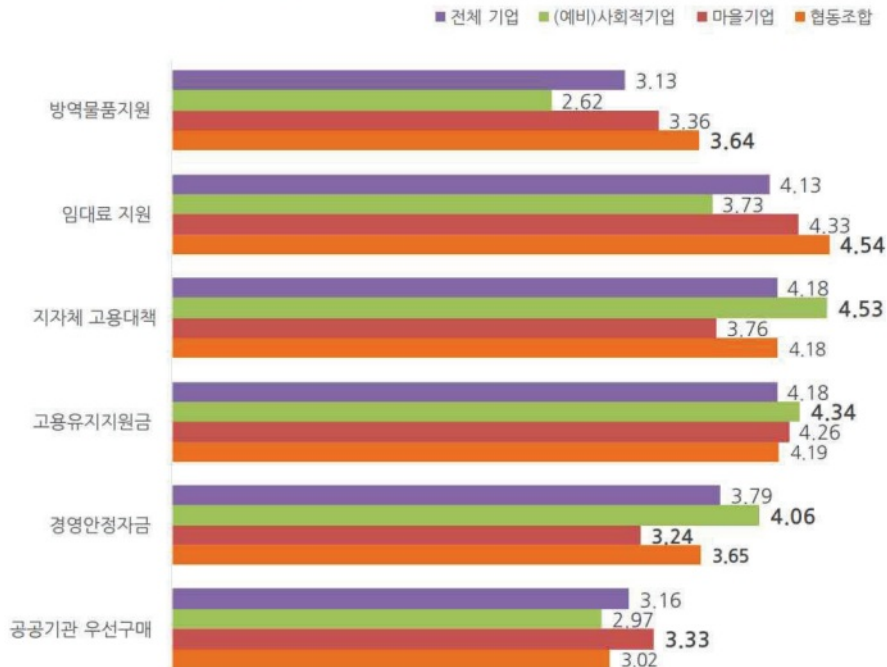
긴급 경영자금 필요 정도



• 지원정책 우선순위(조직형태별)<sup>6)</sup>

- 전체 기업의 지원정책 우선순위는 고용유지지원금(고용부)과 지방자치단체자체의 고용대책이 4.18점으로 가장 높음. 반면 이를 조직형태별로 구분하여 보면 우선순위에 다소 차이를 보임.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자체 고용대책 > 고용유지지원금,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은 임대료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 순임

조직형태별 지원정책 필요 우선순위



5) 1억원 이상 희망 사회적기업(17개사) :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주)커스프, 달성군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꿈꾸는씨터어(주), (사)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우리세상, (주)할리케이, (사)츄츄는 박물관, 아니나리, 파파스케이 주식회사, (주)운동명가 조아짐, (주)한우리건강의료기, (주)레마온종일케어, (주)비피, 농업회사법인 (주)나무를심은사람, (주)더해피, (주)스카이엔터프라이즈 ※8천만원~1억원 미만 : 10개사

6) 우선순위 점수 환산방법 : 응답자가 6개의 문항에 1순위 ~ 6순위를 매기면 1순위에 6점, 2순위에 5점, 3순위에 4점, 4순위는 3점, 5순위는 2점, 6순위는 1점을 배점하여 각 문항별 총 점수에 평균을 구한 점수

## 04 대구 사회적경제 코로나19 피해 실태조사 결론

### • 서비스 업종의 정상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

- 대구사회적경제기업은 대구광역시의 산업별 분포와 유사하게 서비스 업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특별히 서비스업은 업종의 특성상 타 업종에 비해 휴업을 많이 실시하고 있으며, 정상 운영의 비중이 매우 낮음. 또한 납품/용역 등 계약 취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기업 경영은 물론 고용유지도 매우 어려운 실정임
- 또한 코로나19 피해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지역 내 일반적인 취약계층 일생생활에 가장 큰 영향이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 내 취약계층 근로자의 소득도 크게 줄어들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임
-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문화예술, 교육, 식품 및 음식점업 등 서비스 업종과 관련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 지원사업을 구성하여 취약계층 등으로 사회적경제 서비스 업종에서 이를 소비하게 할 수 있음
- 이는 취약계층의 소득보전에서 시작하여 지역사회 소비 진작 및 서비스업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액 증대와 경영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음. 코로나로 인한 위기의 상황에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음

### • 사회적경제기업을 우선시하는 정책자금 필요

-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 정책자금'은 중소기업<sup>7)</sup>을 대상으로 수익구조와 대출상환역량 등 기업평가를 통해 직접대출을 실행하고 있음. 해당 기업평가는 취약계층 고용과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상 정책자금 선정의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로 대출 실행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의 기준<sup>8)</sup>(근로자 약5~10명 등)에 맞아야 하는 등 소규모 기업에 제한됨
- 신용보증기금<sup>9)</sup>은 2019년 대구·경북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그러나 해당 신용보증 지원은 필요자금의 신규대출시 신청한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어 필요자금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기회는 적은 상황임
- 이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기준보다 낮게 구성하며,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거나 혹은 특징적인 사회적 지표를 설정하여 이에 적합한 대구사회적경제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정책자금이 필요한 상황임

7) 중소기업의 기준 :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기업 중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 모두 충족해야함) 중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대략 평균매출액 제조업 1,500억 원이하, 서비스업 600억원 이하 등으로 구성됨)

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9) 신용보증기금은 대구·경북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4년간 480억원(연간 12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며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출연한 보증료지원금 4억 8천만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보증료를 매년 0.2%씩 5년간 지원할 계획임. 해당 필요자금 신규대출시 우대 보증료 0.5%(일반 1.2%)를 적용하고 시중 금융기관에서 0.3%, 대구 및 경북도 0.2%의 보증료 지원으로 기업은 보증료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기업 운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접 지원

- 인건비 지원 : 위 설문조사 결과 사회적경제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격히 감소(59.5%)하여 휴업이 33.3%로 가장 높은 상황이나 유급휴직, 연차휴가 등 인건비 부담이 매우 높음.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출 부담을 줄여 즉각적으로 경영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임대료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필요한 정책을 묻는 서술 문항에서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명시하였으며, 지원정책 우선순위를 조직형태별로 구분해서 보면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은 모두 임대료 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4. 대구 사회적경제 2020년 코로나19대책 TF 논의 및 추진사항

## I-1 코로나19 대응 업종별 사업(화) 추진 계획

### I. 코로나19 대응 사업(화) 계획

#### □ 운영 개요

- 기간 : '20. 4월 ~ 12월
- 주요내용 : 코로나19 대응 업종별 장·단기 사업(화) 계획 수립 및 추진

#### □ 추진 경과

- 코로나19 대책TF 내 경영 이슈 및 사업화 의견 수렴(4/10, 4/17) → 업종별 간담회 진행 (4/24~4/29) → 코로나19 특별대응분과 운영
- 업종별 간담회 진행 : 총 5회 진행 / 35개 기업 참여

순번	업종	일시	장 소	참여기업
1	여행·관광 분야	4.27.(월) 10:00~12:00	(주)공감씨즈	(주)공감씨즈 외 3개
2	교육·기타서비스 분야	4.28.(화) 09:30~11:30	2층 상상홀	(사)우리세상 외 12개
3	문화·예술 분야	4.28.(화) 16:00~18:00	2층 상상홀	(주)희망정거장 외 5개
4	일반제조·유통 분야	4.29.(수) 10:00~12:00	4층 혁신홀	무한상사 외 5개
5	식품·먹거리 분야	4.29.(수) 10:00~12:00	4층 도서관	강북희망협동조합 외 5개

#### □ 업종별 간담회 주요 내용 (\*자세한 내용은 [붙임2] 참고)

- 공통의견 : 지속적인 모임의 자리 필요. 온라인 시장 진입에 대한 아이템 발굴 및 준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장기전략 준비 필요, 생존을 위한 버티기 자금 필요

순번	업종	주요 논의 내용
1	여행·관광	IT기술 활용, 관광사업 펀딩, 여행바우처 사업등 새로운 사업 분야 개척 필요. 취약계층 일자리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
2	교육·기타서비스	교육 관련한 온라인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 필요
3	문화·예술	비대면시장 확대에 따른 공연 서비스 개발 필요. 온라인 콘텐츠, 협업 콘텐츠 등 새로운 전환이 필요.
4	일반제조·유통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원스톱 지원 필요. 사업화를 위한 투자 활성화 시급
5	식품·먹거리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 필요. 건강 관련 상품 개발, 품질 인증 및 기술 개발 필요

#### □ 향후 계획(안)

- 코로나 19 대응 업종별 사업화 계획 수립 및 실행
  - ▶ 구성 : 업종별 대표사+부문별 담당자 중심으로 특별대응분과 구성
  - ▶ 간담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검토하여 핵심과제 선정 후 사업화 방안 도출
  - ▶ 특별대응분과 중심으로 사업 기획 및 추진
- 업종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 대구·경북 사회적경제 상생협력사업 예산 활용

## 1-2 대구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판로 진출 지원 계획

### I. 코로나19 대응 사업(화) 계획

#### □ 운영 개요

- 사업기간 : ' 20년 5월 ~ 12월
- 담당기관 : 무한상사 사회적협동조합, 대구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사업예산 : 0.9억원(우체국 쇼핑몰 입점 지원 0.3억원/상품경쟁력 강화지원 0.6억원)
- 운영내용 : 대구사회적경제기업의 온라인 시장 진출 지원
  - ▶ 온라인 시장(우체국, 소셜커머스) 입점 지원 : 상세페이지 제작, 기획전·프로모션 운영
  - ▶ 상품경쟁력 강화 : 상품 기획, 표준화/규격화, 생산관리를 위한 교육·컨설팅·사업개발비 지원

#### □ 추진 경과

- 우체국 쇼핑몰 입점 지원 사업
  - ▶ 사업 추진 방향 : 우체국 쇼핑몰에 입점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입점 단계별 지원 및 프로모션 행사·기획전 운영을 통한
  - ▶ 무한상사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13개 기업(24~25개 상품) 지원신청(4/17~4/27, 10일간)
  - ▶ 13개 기업 대상 입점 지원 서류 및 상품 등록 자료 검토 및 보완작업 중(~5/7)
-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상품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 ▶ 사업 추진 방향 :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목표로 하는 기업 중 상품화 또는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온라인 시장 진출을 활성화
  - ▶ 무한상사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사업방향 및 추진계획 수립 논의

#### □ 향후 계획(안)

- 우체국 쇼핑몰 입점 및 상품 등록 지원 : 5/7 ~ 5/21 (2주간)
  - ▶ 상품 사진 촬영 및 상세페이지 제작(1차로 13개 기업 대상)
- 우체국 쇼핑몰 할인 프로모션 및 기획전 운영 : ' 20. 5월 ~ 12월
- 기업·상품을 발굴 및 입점지원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우체국 쇼핑몰 입점 확대 예정
-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상품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 ' 20. 5월 ~ 11월
  - ▶ 사업 계획 수립 및 참가 기업 모집 공고 : ~ 5/15
  - ▶ 사전 진단 및 기업 선정 : ~ 5/29

## 1-3 긴급 프로모션 지원사업 계획

### I. 코로나19 대응 사업(화) 계획

#### □ 사업 취지

-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판촉촉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

#### □ 사업 개요

- 사업명 : 코로나 19 피해 최소화 및 조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
- 내용 : 판매 프로모션을 통해 위축된 기업의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기업별 실질적인 필요에 대응하는 지원 수행
- 지원규모 : 0.7억원(유형별·분야별 사업 지원, 기업당 250만 원)
- 추진기관 : 대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무한상사 사회적협동조합

#### □ 지원 내용

- 기업별 수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

No.	지원 유형	세부 내용
1	프로모션 행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프라인 : 판촉 행사, 기획전 진행</li> <li>· 온라인 : 쿠폰 발행 지원, 온라인 배너 게시 지원, 온라인 판매 택배비 지원</li> </ul>
2	디자인 개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장패키지 제작 지원 : 택배 배송 원활을 위한 상품포장 포장재 디자인, 제조 / 카톤박스, 배송 부자재 지원</li> <li>· 홍보물 제작 지원 : 리플렛, 쿠폰, 판촉물 제작 등</li> </ul>
3	업체 경영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외간판 교체, 내부인테리어 개선, 화장실 개선, 안전시설 설비 개선</li> </ul>
4	POS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관리시스템 신규 구매 및 설치</li> </ul>
5	제조분야 상품 개발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재료 구매 지원(상품 리뉴얼 등 진행 시)</li> </ul>

#### □ 추진 일정(안)

- 사업 계획 수립 : 5/11 ~ 5/15
- 사업 공고 및 사전진단 : 5/18 ~ 5/28
- 선정 및 협약 : ~ 6/05
- 사업 수행 : 6/8 ~ 9월 말
- 사업 결과보고, 수합, 정리 : ~ 9/25
- 결과공유회 : ~ 10월중

## II-1 대구 사회적경제기업 임대료 지원사업(안)

### II. 연계 지원 사업

#### □ 사업 취지

- (전국)사회적경제 코로나19 대응본부는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회원과 사회적경제 조직 및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구성
- 코로나19 대응본부는 연대와 협동의 정신을 이어 ‘고용을 조정하기보다 고용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우리 살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위기대응 전략’ 임을 천명하고 실천
- 위 펀딩을 통하여 모금된 금액으로 코로나-19의 피해 속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응원하고자 시작

#### □ 사업 개요

- 사업명  
: 코로나 대응 고용조정0%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임대·임차료 지원사업 - 대구지역 공모 (대구사회적기업협의회 사업예산 추가 확보를 통해 임차료 지원부문 범위 확대)
- 사업 목적
  - ▶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재정적 지원
  - ▶ 사회적경제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한 임대료 및 임차료 지원
  - ▶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 입은 대구지역 별도 공모를 통해 지원 확대(사단법인대구사회적기업협의회 사업예산 추가 확보)
- 추진 단체 : 대구사회적경제가치연대(준), (사)대구사회적기업협의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 지원 내용 및 규모

- 기업 소재지, 공장, 매장 등 사업 관련 소재지의 임대료 및 사업을 위해 장기로 임차한 고가의 장비 임차료 지원
  - ▶ 장비 임차료의 경우 대구사회적기업협의회 확보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만 시행
  - ▶ 장비 임차료의 경우 장비 구입을 목적으로 진행한 기존 대출 월 납부금도 일부 허용
- 지원 규모 : 1.0~1.5억원(각 기업당 50~400만원 / 200만원 기준 75여개 기업지원규모)
  - ▶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업종별, 기업별 기존 부담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